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중·미 무역 마찰의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劉瑞龍

2020 年 08 月

# 중·미 무역 마찰의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指導教授 洪 在 成

劉 瑞 龍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0年 6月

劉瑞龍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0年 6月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5
제 2 장 선행 연구 및 무역 마찰의 이론적 배경 .....	6
제1절 선행 연구 .....	6
1. 중국 연구 현황 .....	6
2. 한국 연구 현황 .....	9
3. 미국 연구 현황 .....	11
4. 중국 국내외 연구 및 본 연구의 차이점 .....	13
제2절 무역 마찰의 이론적 배경 .....	15
1. 무역 마찰의 정의 .....	15
2. 무역 마찰의 특징 .....	16
3. 무역 마찰의 유형 .....	19
4. 국제 무역 마찰 이론 .....	20
제3절 무역 마찰의 원인 및 영향 .....	24
1. 무역 마찰의 원인 .....	24
2. 무역 마찰의 영향 .....	25
제 3 장 중·미 무역 마찰의 영향 요인 분석 .....	26
제1절 중·미 무역 마찰의 내용 .....	26
1. 중·미 무역 마찰의 현황 .....	26
2. 중·미 무역 마찰의 사례 .....	31
3. 중·미 무역 마찰의 특징 .....	35
4. 중·미 무역 마찰의 발전 과정 .....	37
제2절 중·미 무역 마찰의 영향 요인 분석 .....	40
1. 중·미 무역의 균형 상실 .....	40

2. 미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 정책 .....	42
3. 지적재산권 분쟁 .....	42
4. 중국의 급속 발전 .....	45
5. 중·미 무역 비대칭 의존 관계 .....	47
제 4 장 중국의 영향 및 대응 방안 .....	59
제1절 중국에 대한 영향 .....	59
1. 긍정적인 영향 .....	59
2. 부정적인 영향 .....	59
제2절 중국의 대응방안 .....	61
1. 중·미 협상 방면 .....	61
2. 중국 무역 개방 방면 .....	62
3. 중국 무역 개혁 방면 .....	65
제 5 장 결론 .....	68
참고문헌 .....	71
Abstract .....	76

## <표 차례>

<표 2-1> 중·미 무역마찰에 관한 중국문헌 요약 .....	8
<표 2-2> 중·미 무역마찰에 관한 한국문헌 요약 .....	10
<표 2-3> 중·미 무역마찰에 관한 미국문헌 요약 .....	12
<표 3-1> 2014-2019년 동안 중국 철강 산업의 수출입 총액 .....	28
<표 3-2> ZTE 무선통신 장비 사례 .....	30
<표 3-3> 화웨이 스마트폰 사례 .....	31
<표 3-4> 중국 농업기계 사례 .....	32
<표 3-5> 2011-2019년 동안 중국 대미국 무역 수출입의 변화 .....	40
<표 3-6>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발기한 '301 조사' .....	43
<표 3-7> 2011-2019년 동안 미국이 대중국 기업 실시한 "337 조사" 상황 .....	44
<표 3-8> 중미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45
<표 3-9> 중국 대미국 의존도 .....	47
<표 3-10> 미국 대중국 의존도 .....	48
<표 3-11> 중국 수출하는 주요 상품 구성 .....	51
<표 3-12> 미국 수출하는 주요 상품 구성 .....	51
<표 3-13> 2012-2019년 동안 중미 간 FDI 의존도 .....	53

## <그 립 차 례>

<그림 3-1> 2015-2019년 동안 미국이 대중국 반덤핑, 반보조금사건 .....	27
<그림 3-2> 2010-2020년 동안 미국이 대중국 무역구제 사건 .....	28
<그림 3-3> 2011-2019년 동안 중국이 대미국 무역 수출입의 변화 .....	40
<그림 3-4> 중국이 대미국의 무역 의존도 .....	47
<그림 3-5> 미국이 대중국의 무역 의존도 .....	48

# 제 1 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79년 중-미는 쌍무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정식 수교를 맺었다. 당시 24.5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미 무역총액은 2016년 말에는 5,785.9억 달러, 2018년에는 6,335.2억 달러로 동기대비 8.5% 증가했다. 그 중 수출은 4,784.2억 달러로 11.3% 증가하고, 수입은 1,551억 달러로 0.7% 증가하고 무역 흑자는 3,23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으며 중국의 대미국 무역흑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sup>1)</sup>

현재 중국은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미국의 수입국 1위를 랭킹하고 수출국으로는 3위를 랭킹 한다. 미국은 중국의 6위 수입국과 1위 수출국이다. 양국 간 무역 관계는 긴밀하지만 중-미 관계가 변하고 있고 무역 마찰도 심화되고 있다. 1979년 중-미는 공식 수교를 하고 쌍무무역협정을 체결했다. 10년 뒤인 1989년 미국 정부는 중국에 경제제재를 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미 양국의 고위층 상호 방문을 중단했다. 1995년 중-미는 처음으로 지적재산권으로 인한 마찰이 생겼다. 2009년 미국이 중국에 무역전쟁을 발동하였는데 대표적인 사건으로 ‘타이어 특보안’이 있다. 무역 마찰이 빠르게 증가하고 수량, 금액, 범위를 막론하여 미국에서 시장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트럼프가 출범 이후 중-미 간 무역 마찰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입 무역국이고 중국은 세계 최대의 화물 무역국 그리고 최대 생산 제조국이다. 중-미 무역전쟁에서 양국 모두 관세의 강화를 중요한 협상 도구로 삼아왔다. 관세 제재 적용 강도를 높임은 주로 과세 품목의 범위 확대와 관세율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2018년 3월 22일 중국 수입품에 대한 ‘301 조사’에 따른 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중-미 간 전면 무역 마찰을 촉발했다. 5월19일 워싱턴에서 열린 2차 협상에서는 <중-미 경제무역협상 공동성명>을 발표해 무역 마찰을 완화시켰다.<sup>2)</sup> 그러나 6월 15일 미국은 500억 달러와 2,000억 달러 가치의 중국 수입품에

1) 徐建偉, “改革開放以來我國工業發展的階段特征与未來展望”, 經濟縱橫, 2017, pp.83-89.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잇달아 발표함으로써 무역 마찰을 처음으로 확대시켰다. 2018년 12월 1일 중미 양국은 G20 아르헨티나 정상 회의에서 관세 인상 등 무역 제한 조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019년 5월 6일 트럼프는 10% 관세가 붙는 2,0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5월 10일부터 25%로 높고, 다른 3,000억 달러의 제품에는 25%를 부과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했다.

6월 18일 미국 상무부 공업과 안전국 (BIS)이 “화웨이”를 수출 통제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무역 마찰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2019년 6월 29일 중-미 양국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 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미국은 화웨이에 부품을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8월 2일 트럼프는 9월 1일부터 3,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하였고, 8월 6일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였다. 8월 28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3,0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의 10%에서 15%로 높이고, 2,5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율도 25%에서 3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sup>3)</sup>

2019년 10월 15일 효력이 발생되어 무역 마찰은 세 번째로 확대 되었다. 미국이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한편 중국은 일련의 관세 제재 반대 조치를 단행했다. 2019년 8월 23일 중국은 미국에서 생산된 5,078개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고, 2019년 9월 1일부터 916개 미국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801개의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5%를 부과하였다. 또한 2019년 12월 15일부터는 912개 미국 상품에 10%, 2,449개 미국 상품에 5%의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144개의 미국 상품에 대해 25%부과, 67개의 상품에 대하여 5%의 관세를 추가 징수를 재개하기로 하였다. 양국 간 관세 상품 확대와 관세율 인상, 미국의 이견으로 무역 마찰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경제 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를 계속 추진하며 자체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다른 나라와 국제 조직과의

2) 彭詩琪, “特朗普時期中美貿易摩擦的原因及對策研究論文”, 天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9.

3) 任晗, “中美貿易戰的經濟背景及其對中國的影響”, 經濟研究導刊, 2018.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데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성향이 뚜렷하여 미국과 세계경제의 발전 영향을 주고 중-미 간 경제 무역은 비대칭 의존관계가 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경제적 상호의존을 권력생성과 결합하는 것은 경제적 상호의존을 이용하여 타국을 협박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무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고 조정 비용이 많이 든다. 중국은 미국의 양자 무역액, 무역 구조, 직접 투자 의존도가 비교적 높다. 그 다음으로는 중-미 간의 의존관계는 "상호의존은 양국이 각자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경제적인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수정에 대한 동기 부여를 잃고 자체 강화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말로 소극적인 의존 단계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sup>4)</sup>

2017년에는 중국 첨단 기술 산업의 부가가치의 전 세계 비중이 30%에 육박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고신기술 산업국이 되는 데 성공했다. 첨단 기술 산업에서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은 증가치 비중이 지속적으로 16%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8%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 성장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율은 5.31%로 2년 연속 5%를 돌아 경제 성장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자 및 통신 장비 제조, 전자 컴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 의약제조 3개 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비례는 56.8%, 12.8%, 18.3%이다. 의료장비와 의료기기 제조, 항공우주기 제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합계로 10.1%이다. 고신기술 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중국 제품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였다.<sup>5)</sup>

1993년 중국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액은 100억 달러 미만으로 전체 제품 수출액의 5%안팎이고, 2018년 상반기 중국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액은 3,433.4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8.3% 증가해 전체 제품 수출 총액의 30% 가까이를 차지하여 수출 총액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독일, 일본 미국의 총액을 넘어서는 무역흑자가 500억 달러 안팎을 도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첨단 기술 산업 단지의 건설과 관련해 국가고신구 147곳 중 25곳(혹은 단지)이 국가 '해외 고차원 인력 혁신기지'로 부상하고, 고차원의 창업 창신 인재를 대거 양성해내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고지를 선점하고 선진국의 기술 장벽을 돌파하는 데서의 중요한

4) 董曦丹, "論中美貿易摩擦的成因与對策中國市場", 東北大學碩士論文, 2019.

5) 龔秀國. "中美貿易摩擦及其影響分析", 中共青島市委党校, 青島行政學院學報, 2019, pp.34-39.

역량이 되었다. 2012년 세계 500대 기업 올라선 기업은 1업체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11개 업체로 일본의 6업체를 제쳤고, 미국의 18업체와의 격차가 좁아졌다.

본 연구는 1979년 중-미에서 쌍무무역협정 체결 이후 양국 간의 수출입 데이터를 분석하였는 바 미국이 줄곧 무역적자를 기록했고, 무역역조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본 논문은 중-미 간의 비대칭 무역 의존도가 중-미 무역 마찰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으며 화물 무역 규모에 대한 상호 의존도 중에서의 무역 의존도와 시장 의존도 그리고 화물 무역 구조에 대한 상호 의존도 및 FDI영역의 상호의존도 마지막으로 금융영역의 상호 의존도에 대해 분석을 진행 하였다. 중-미 무역의 비대칭 의존 관계는 한편으로 양적인 불균형, 다른 한편으로 두 나라의 경제 무역에서 차지하는 대등하지 않은 위상 등 질적인 문제이다, 본 연구는 화물 무역, 대외 직접 투자, 금융 등의 분야에서 중-미 경제 무역 관계의 비대칭적인 의존관계에 대해 분석을 할 것이며 중국의 입장에서 무역 마찰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중국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와 무역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미 간 무역 마찰의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은폐적인 것, 그리고 글로벌 경제 중 미국의 큰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미 간 무역 마찰에 대한 대책 연구에 정력을 쏟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무역 마찰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대응은 시범 효과가 있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모사하여 중국과의 무역에서 유사한 사단을 일으키게 되어 중국의 대외 무역 마찰의 폭이 넓어져 무역 발전에 백해무익하게 된다.

세계 각국의 경제 왕래 관계를 보면 중-미 무역 관계는 특수성과 대표성을 지닌다. 두 나라의 세계에서 지위이 양국 무역 관계의 복잡함을 결정짓는다. 중-미 간 경제무역 관계의 영향 정도를 볼 때, 중-미 양국의 경제 영향을 미치고 세계 경제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미 간 무역 마찰에 대하여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지, 전면적인 무역 마찰의 폭발을 막고 양국 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중국대한 전략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중-미 간 경제 무역은 미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중-미 간 무역 관계를 잘 처리해야만 중-미 양국과 전 세계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주로 중-미 양국 간의 무역 마찰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중-미 간 무역 마찰이 중-미 양국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중국은 이번 무역 마찰에 대해 어떠한 대응 정책을 취할 것인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중미 양국 간의 무역 마찰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중미 간 무역 마찰이 중미 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중국은 이러한 무역 마찰에 대한 대응방이 무엇이인지는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학술 연구 논문, 연구 보고서, 통계자료, 서적, 신문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국학자와 미국 학자 또한 한국학자가 중·미 무역 마찰에 대해 어떻게 연구했는지, 무역 마찰 연구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 차이를 분석해 중미 무역 마찰의 영향 요인과 중국 대응 방안 대해 기술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서론으로 본 논문의 연구 배경 및 목적과 연구 방법 및 구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무역마찰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의 검토 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미 무역 마찰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미 무역 마찰의 영향 요인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주로 중미 협상 방면, 구역 합작 방면, 무역 개혁 방면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 제2장 선행 연구 및 무역 마찰의 이론적 배경

### 제1절 선행 연구

#### 1. 중국 연구 현황

姜崢睿(2017)은 중-미 무역역사 발전 과정을 분석하면서 중-미 의존도는 비대칭적인 의존이며, 중국의 대미 의존도가 더 높고 탈퇴비용이 더 높으며 무역관계에서 더 수동적인 무역 불균형이 주요 원인이라고 중미 무역 마찰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였다.<sup>6)</sup>

吳明明(2018)은 중-미 무역마찰의 주요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포퓰리즘이 중국의 산업 고도화를 제한하고 있으며, 중-미의 실력차이 축소로 인해 중국을 전략적인 라이벌로 간주하고 있고, 중국의 수출품 산업구조상의 결함과 미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중국을 수동적인 국면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안화 환율이 중미 쌍무무역에 대한 영향은 뚜렷하지 않다. 대외무역 시장의 다원화, 대외무역산업 구조 조정으로 위안화 환율 메커니즘의 보완하고, 시장개방을 확대 그리고 WTO 분쟁체제의 활용 등으로 중미 무역마찰에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7)</sup>

韓國良(2019)은 '중-미 무역전쟁의 갈등 분석과 흐름 예상'에서 중국의 무역 마찰은 주로 두가지 대응 전략의 선택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반제조치를 취하여 미국의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개방을 확대하여 수입 수요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불매 공급 측의 구조개혁 정책의 요구에 따라 과잉업종의 수출물량을 낮추고, 낮은 부가가치 상품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거나 인상하며, 셋째는 국내 산업기술의 수준을 높여 'Made in China 2025' 등 경로를 통해 미국 수입품에 대한 의존을 줄인다.<sup>8)</sup>

肖光恩(2019)은 '현재 중-미 무역 마찰의 현실적 난제와 해결 경로'에서 중국이 중-미 무역 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발상의 조정이 필요하다

6) 姜崢睿, "合作与摩擦:中美貿易關係發展研究", 吉林大學, 2017, pp.34-38.

7) 吳明明, "特朗普政府下中美貿易摩擦分析", 上海社會科學院, 2018, pp.40-46

8) 韓國良, "中美貿易戰爭的矛盾分析和走向預判", 河北企業, 2019.

다고 제안했다.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미 무역 전쟁의 부정적인 충격을 해소하고, 국내 경제 제도의 개혁을 확고히 추진하되, '일대일로'를 기본으로 한 다자간 무역 체제 구축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여 세계 각 나라에 공공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9)</sup>

張馳(2019)는 '중-미 무역전의 본질과 그에 따른 영향 분석'에서 중국이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해 반격을 가하고, 자체적 종합 능력을 높이며 대외무역의 확대와 전환을 가속화하고, 내부적으로 소화를 하여 무역 전쟁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동시에 미국의 기술 독점과 기술 봉쇄를 피할 수 있는 고신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하였다.<sup>10)</sup>

董曦丹(2020)은 '중-미 마찰의 형성 원인과 대안'에서 중-미 간 무역 마찰의 원인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중국 평화적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 중국 경제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으로 미국의 패권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다. 셋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계속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대응책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 경제 왕래에서의 합작과 공동이익을 쟁취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술연구비용 지출을 늘리고, 제품 구조를 최적화하며, 셋째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 등에 맞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응소를 독려하는 것이다.<sup>11)</sup>

羅錦隆(2020)은 '중-미 무역마찰의 원인 분석 및 그 해결방안'에서 중국은 철강산업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수출에 의한 수출입경기 부양이 필요하고, 중국 철강제품이 미국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됨으로 미국 산업이 충격을 받음으로 미국은 늘 무역 전쟁을 발동하여 수출입에서의 적자를 완화시키려고 한다. 중국의 국제적 지위과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고 미국은 중국으로 인한 압력으로 비롯된 일련의 시장개혁 조치를 구사하고 있어 중-미 간 무역마찰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국제 간 무역 협력의 강화, 새로운 국제 무역 관계의 개척, 건전한 법규로 시장 질서를 안정, 중-미 무역전쟁의 경보 메커니즘의 구축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무역 마찰에 대처할 수 있다.<sup>12)</sup>

9) 肖光恩, "当前中美貿易摩擦的現實難題和解決途徑", 安徽師範大學學報, 人文社會科學版, 2019, pp.40-50.

10) 張馳, "中美貿易戰本質及其帶來的影響分析", 科技風, 2019, p.206.

11) 董曦丹, "論中美貿易摩擦的成因與對策中國市場", 中國市場, 2020.

12) 羅錦隆, "分析中美貿易摩擦的原因及其解決對策", 現代營銷·信息版, 2020.

<표 2-1> 중·미 무역마찰에 관한 중국문헌 요약

연구자 (연도)	제목	내용
姜崢睿 (2017)	合作与摩擦:中美貿易關係發展研究	· 중미 의존도는 비대칭적인 의존이며, 무역 불균형이 주요 원인이라고 중미 무역 마찰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였다.
吳明明 (2018)	特朗普政府下中美貿易摩擦分析	· 시장개방을 확대 그리고 WTO 분쟁 체제의 활용 등으로 중미 무역 마찰에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韓國良 (2019)	中美貿易戰爭的矛盾分析和走向預判	· 중국의 무역 마찰은 대응 전략은 첫째는 반제 조치를 취하여 미국의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개방을 확대하여 수입 수요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肖光恩 (2019)	当前中美貿易摩擦的現實難題和解決途徑	· 중국이 중미 무역 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발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張馳 (2019)	中美貿易戰本質及其帶來的影響分析	· 중국이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해 반격을 가하고, 신기술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董曦丹 (2020)	論中美貿易摩擦的成因与對策中國市場	· 중미 간 무역 마찰의 원인은 첫째,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중국 평화적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다. 셋째,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계속 심화되고 있다.
羅錦隆 (2020)	分析中美貿易摩擦的原因及其解決對策	· 중국 철강제품이 미국 시장에 대량으로 유입됨으로 미국 산업이 충격을 받음으로 미국은 늘 무역 전쟁을 발동하여 수출입에서의 적자를 완화시키려고 한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선행연구중에서 중-미무역마찰 원인은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계속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상품 미국 대량으로 유입됨으로 미국 산업이 충격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미의 불균형 적인 무역 의존도를 중-미 무역 마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 중-미 양국의 화물 무역 규모, 화물 무역 구조, FDI 영역, 금융 영역의 불균형적인 의존 관계를 연구하였다.	

## 2. 한국 연구 현황

정환우(2010)는 중·미 통상관계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미 무역마찰의 원인은 첫째, 무역 불균형 심화, 둘째, 미국의 대중국 통상전략 전환지속, 셋째, 통상마찰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압력과대응이라고 지적했다.<sup>13)</sup>

서평(2009)은 미중 무역 및 투자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미중 무역 마찰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무역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무역마찰은 빈번하게 일어나겠지만, 오늘날 영국과의 통상관계가 개선된 것과 같이 미국과도 협상체제를 잘 구축해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전에는 무역마찰이 발생하면 오로지 제재와 냉전수단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현대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14)</sup>

최예화(2013)는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각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수출품들은 반덤핑 등 무역규제조치를 통해 무역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sup>15)</sup>

약단(2016)은 미국의 기술무역장벽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중미 양국의 쌍무무역은 규모가 날로 커지고, 상품이 범위가 확장해 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동시에 무역 마찰도 동반해왔는데, 그 중 중국의 대미국 수출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이 바로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기술 장벽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정부가 건전한 제품 표준 체계를 빠르게 건립하고 업계 협회는 국내 산업에 대한 지도 일을 잘해야 한다 등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sup>16)</sup>

이승주(2012)는 미중 경쟁과 동아시아 통상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13) 정환우, “미-중 통상관계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연구”,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9 NO.23, 2010.

14) 서평, “중국과 미국 간 무역 및 미적 투자관계”, 현대경제연구원, 2009, pp.16-21.

15) 최예화,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요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3, pp.44-48.

16) 약단, “미국의 기술무역장벽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2016, pp.40-42..

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표면화된 중국의 부상은 세계질서의 지각변동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지역질서의 형성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로써 전략으로 무역마찰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sup>17)</sup>

나수엽(2010)은 중·미 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 격화의 경과와 배경에 대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역마찰의 특징으로는 미국의 대중국상계과세 활용강화,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경기회복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선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강 국면에 진입한 미국경제의 회복이 지연으로 인한 미국 내 경기회복 촉진에 대한 압력 비동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미국 정부로 하여금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sup>18)</sup>

김승재(2013)는 중미 무역마찰 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미 양국은 세계적인 무역대국으로서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무역을 전개해야 할 것이므로 경쟁은 필연적인 것이며, 이러한 경쟁 속에서 무역 불균형, 환율제도, 지적재산권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중미 마찰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였다.<sup>19)</sup>

<표 2-2> 중·미 무역마찰에 관한 한국문헌 요약

연구자 (연도)	제목	내용
정환우 (2010)	미-중 통상관계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연구	· 중·미 무역마찰의 원인은 첫째, 무역 불균형 심화, 둘째, 미국의 대중국 통상전략 전환지속, 셋째, 통상마찰을 둘러싼 정치, 사회적 압력과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최예화 (2013)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요인	· 중국 수출품들은 반덤핑 등 무역규제조치를 통해 무역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단	미국의 기술무역장벽이 중국	· 중미 양국의 쌍무무역은 규모가 날로 커

17) 이승주, “미중 경쟁과 동아시아 경제협력:통상정책을 중심으로”, 2012, pp.10-12.

18) 나수엽, “중·미 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격화의 경과와 배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p.83-87.

19) 김승재, “중미 무역마찰 문제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pp.33-36.

(2016)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지고, 상품이 범위가 확장해 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동시에 무역 마찰도 동반해왔는데, 그 중 중국의 대미국 수출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것이 바로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기술 장벽
이승주 (2012)	미중 경쟁과 동아시아 경제협력:통상정책을 중심으로	·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지역질서의 형성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중국에 대한 견제로써 전략으로 무역마찰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나수엽 (2010)	중·미 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격화의 경과와 배경	· 중·미 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 격화의 경과와 배경에 대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역마찰의 특징으로는 미국의 대중국상계과세 활용강화,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경기회복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선택.
김승재 (2013)	중·미 무역마찰 문제에 관한 연구	· 중미무역 속에서 무역 불균형, 환율제도, 지적재산권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중미 마찰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한국학자들은 중·미 무역마찰 원인이 무역 불균형 심화, 환율제도, 지적재산권 관련한 문제,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기술 장벽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미 무역 마찰원인이 중·미 비대칭 의존도제시하였다.

### 3. 미국 연구 현황

Aaron L. Friedberg(2017)는 중국 제품의 가격이 낮아 국제시장 경쟁에서의 막강한 가격 경쟁력이 있으며, 가격이 낮은 이유는 중국노동력수준이 낮으며 위안화 환율을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한다.그들은 이것이 부당한 가격 경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국민의 사상도 간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를 빈번히 하게 영향주어 무역마찰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sup>20)</sup>

Joseph Besten (2010)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최적화로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국 제품이 미국 제품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자 미국 기업들이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은 자국 기업을 보

20) Aaron L. Friedberg, "A New U.S. Economic Strategy toward China", The Washington Quarterly, 2017, pp.23-30.

호하기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펴면서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세계 패권의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 보호무역 수단을 동원한다면 중미 간 무역분쟁은 물론 중미 간 무역분쟁도 세계경제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sup>21)</sup>

William R. Cline(2010)은 위안화가 1% 절상되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GDP를 0.3~0.4% 감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10%절상되면 대미 무역흑자가 1700~2500억 달러 감소하는 등 위안화 환율은 중미 무역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위안화는 중-미 간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 아니며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것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 스스로 원인을 찾아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sup>22)</sup>

C.Fred Bergsten(2019)은 트럼프의 무역전 조치는 크게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미국 제품을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지만, 높은 관세 장벽이 다른 나라의 보복 관세를 촉발시켜 미국의 수출을 감소시키고 심지어 미국 정책이 이미 미국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게 만들었다고 여긴다. 트럼프의 수입 감축만 보고 수출 증가를 소홀히 한 정책이 더 이상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미국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무역시스템까지 손상시킬 수 있으며 무역 마찰이 통화전까지 번질 수 있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세계경제와 미국 자체 경제에 더 해가 될 수 있다.<sup>23)</sup>

<표 2-3> 중·미 무역마찰에 관한 미국문헌 요약

연구자 (년도)	제목	내용
Aaron L. Friedberg (2017)	A New U.S. Economic Strategy toward China	· 부당한 가격 경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국민의 사상도 간접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를 빈번히 하게 영향주어 무역마찰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1) Joseph Besten, "The political economy of protection", Geneva and New York:United Nations, 2010, pp.41-42.  
 22) William R. Cline, "Reminbi Undervaluation, China's Surplus and the US Trade Deficit", Policy Briefs, 2010, pp.381-383.  
 23) C. Fred Bergsten, "Trump's War on US Exports", Trade and Investment Policy Watch blog, 2019.

Joseph Besten (2010)	The political economy of protection	· 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최적화로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중국 제품이 미국 제품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자 미국 기업들이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William R. Cline (2010)	Reminbi Undervaluation, China's Surplus and the US Trade Deficit	· 위안화는 중미 간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 아니며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것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 스스로 원인을 찾아내 글로벌 경제에 편입되도록 해야 한다.
C.Fred Bergsten (2019)	Trump's War on US Exports	· 트럼프의 무역전 조치는 크게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다른 나라에서 더 많은 미국 제품을 구매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미국학자들은 중·미 무역마찰 대응방안이 중국이 미국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중국 노동환경 개혁하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입장에서 중국 무역시장 다원화, 산업 구조 확대, WTO의 구조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4. 중국 국내외 연구 및 본 연구의 차이점

중국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학자들은 중·미 무역 마찰의 근본 원인은 국제간 산업 결과가 서로 대등하지 않은 것, 각국의 경제 정책과 그 국내 이익 집단의 정치 행위가 국내외 산업간 갈등을 외부로 향하게 하는 것이 중-미 무역 마찰의 관건이라고 본다. 아울러 각국의 정치적 이익 집단의 경쟁은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중-미 무역 마찰의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정치적 요인 외에도 중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이 비교적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선진국 시장을 포함한 국제시장을 찾고 있고 반면에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중국 제품은 진입이 용이하고 수출 가격이 낮아 반덤핑 소송으로 이어지기 쉽다. 가격이 낮은 데다 단기간에 수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남으로 미국의 생산 업체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 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중-미 무역 마찰의 원인에서 알 수 있

듯이 중-미 무역 적자와 첨단기술력이 문제이다. 해외 일부 학자들은 중-미 무역 적자의 1차적 원인으로 위안화 저평가 문제와 중국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특히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 각종 차별적인 관세 절감, 외국 기업에 대한 진입 제한 등을 꼽았다. 해외 학자들은 또한 중국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인해 중국에 저원이 이점을 가져다주는 것도 꼽는다. 중국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은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 보증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중국의 노동비용이 저렴함으로 상당한 이점을 가지는 것이 중·미 무역 마찰의 원인 중 하나이다.

중국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취하는 고급 구매 집단을 파견하여 미국의 비행기 등 몇 안 되는 제품을 대대적으로 구매하는 무마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첫째, 국제 무역 마찰은 일상적인 현상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경제 기구를 설립해야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대표적인 관점이다. 둘째, 제품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셋째, 경제 체제와 무역 체제의 개혁을 더욱 깊은 단계로 진행하고 경제 체제와 경제 정책의 주요 측면에서 세계 무역 기구 가입을 약속하며, 중-미 무역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중국의 시장 잠재력에 따라 미국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크게 늘려야 한다.

한국과 미국 학자들은 중-미 무역 마찰 해결의 주요 관점으로 첫째, 중-미 무역 마찰의 근원은 중국이 WTO 가입 때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WTO와 IMF 회원국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따라서 중-미 간 무역 마찰을 해결하는 근본적 해법은 중국의 더 나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둘째, 위안화 격상을 부추긴다. 셋째, 미국은 높은 관세를 통해 중국이 미국에 끼친 피해를 상쇄해야 한다. 넷째, 미국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강한 의존도를 이용해 이미 운영 중인 체제와 정책을 포기하도록 중국의 개혁을 촉구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은 노동 대우를 높여야 한다. 여섯째, 수출 관세 환급 정책의 개혁을 더 한층 진행해야 한다.

본 논문은 선행 문헌과 차이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학자들이 대부분 중-미 무역 마찰의 원인으로 꼽는 것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내시장의 포화로 미국 시장으로 진출 시 저렴한 수출 가격과 대량의 수출로 인해 미국 본토 산업

에 압박이 가해지는 동시에 미국을 장기간동안 무역 적자 상태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관세 감면 정책, 외국기업의 진출에 대한 제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미의 불균형 적인 무역 의존도를 중-미 무역 마찰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고, 중-미 양국의 화물 무역 규모, 화물 무역 구조, FDI 영역, 금융 영역의 불균형적인 의존 관계를 연구하여 산업 구조의 승급을 가속화하고 수출 상품의 구성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대응 조치를 제출하였다.

## 제2절 무역 마찰의 이론적 배경

### 1. 무역 마찰의 정의

무역 마찰(Trade Friction)은 한 나라의 국제 무역 정책이 일정 기간 국내 특정 산업에 대해 강한 수입국 수출 보호 성향을 보여 이 나라와 무역 파트너 간의 무역 분쟁을 일으키며 국가 산업간 마찰과 충돌로 나타난다.

무역 마찰의 형식은 기술적 무역 조치, 동식물 위생 검역 조치, 반덤핑, 반보조금, 보장 조치, 301과 슈퍼 301조항과 같은 일방적인 합법적 조치에 따른 무역 마찰을 주로 포함한다.<sup>24)</sup>

국제 무역 마찰은 국제 무역 거래 중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무역거래를 하는데 있어 한 나라는 지속적으로 무역 흑자가 나고 다른 나라는 지속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한 나라무역 활동이 다른 나라와 이익관계가 있는 산업을 건드리거나 손해를 주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 의미의 무역 마찰은 국제 무역에서 국가 간 국제 무역이 이뤄지는 과정 중에서 국제 무역의 균형상 한 나라의 무역 활동이 다른 나라의 산업을 건드리거나 손해를 입거나 혹은 한 나라는 지속적인 흑자가 나는데 다른 나라는 적자가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무역 마찰은 전통적인 제도이외의 마찰과 제도 영역의 마찰을 포함한다. 제도이외의 마찰은 각국이 무역 보호 조치를 취하면서 생기는 무역 마찰이다. 국가 간의 제도의 차이와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 마찰을 제도 마찰이라고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각국의 국내 규칙이 다르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나 기술적 무역

24) 孫亞君, “全球價值鏈視角下的國際貿易摩擦對我國的影響研究”, 商業經濟研究, 2019, pp.142-145

장벽의 설치 등의 요인으로 인한 무역 마찰이다.

많은 측면에서 무역 마찰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지 않으며 항상 무역보호주의와 함께 논하게 되며 구체적인 문제의 성격을 찾을 수 없다. 아울러 무역 마찰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 그에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간과하여 전략적 자원의 부적절한 배합을 초래할 수 있다.<sup>25)</sup>

무역 마찰의 중성적인 특징을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무역보호주의의 부정적 의미를 배제해야 한다. 무역보호주의는 정책 취향임으로, 무역 마찰은 무역보호주의를 행사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다. 무역보호주의는 특정 무역 형식 아래의 거시적인 선택이며, 무역 마찰은 이익의 주체가 다자 규칙 내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저해하는 미시적인 행위이다. 무역보호주의 일방적인 원칙은 차별적이고, 경쟁을 반대하며, 자유 무역과 투자를 구속하고 저해하고, 무역 마찰은 다자간 무역에서의 평등 경쟁이다. 그 목적은 자유 무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보호주의는 전략적 행위로서 범위가 넓고 통제가 쉽지 않으며 무역 마찰은 규칙의 안에서 작동하며 전체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무역 마찰은 국제 규범의 안에서의 무역 충돌과 분쟁을 말하며 분쟁 당사국들의 국제 규칙과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비난을 받는 쪽은 종종 자신들의 행동이 합당하고 호의적이라고 호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역 마찰에 대해 정의상에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sup>26)</sup>

## 2. 무역 마찰의 특징

무역 마찰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사건에 연결된 국가들의 행동이 순차적임, 다시 말하면 한 나라가 개시하면 다른 쪽이 대응하는 패턴이다. 둘째로 무역 마찰의 본질은 한쪽의 무역행위가 옳지 않거나 일방, 양자, 다자의 정책제도를 위반해서 생기는 것이다. 결국 정책제도에 대한 연구로 귀결될 수 있다.<sup>27)</sup> 세계일체화 배경으로 무역 마찰도 자율성, 복잡성, 논란성이 있다.

25) 曾鍾, “全球生產網絡體系下中美貿易利益分配的界定”, 世界經濟研究, 2008, pp.36-43.

26) 李燕, “中國產業政策與貿易政策協調問題研究”, 現代經濟討論, 2012, pp.41-45.

27) 張志凱, “中國對外貿易摩擦問題研究”, 南開大學碩士研究論文, 2007, pp.36-42.

## 1) 자율성과 과도성

다자간 무역제도는 글로벌 관리 구조를 기초로 하고 규제를 벗어난 과도성과 자율성은 국제 무역 마찰의 현저한 특징이다. 국제 무역의 장기간의 발전에 따라 무역 제도는 시스템 내에서 여러 면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WTO는 국가 간 무역규칙을 다루는 중요한 국제적 조직이며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무역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WTO 다자체제의 구성 멤버이다. WTO는 전 세계 무역 관리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관세 및 무역 총 협정>, <반덤핑협약>, <보조금과 상계보조금조치협약>, <위생과 식물검역조치협약>, <서비스무역 총 협의>, <농업협정>, <무역기술장벽협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등을 위주로 하는 공식적인 다자간 국제 규칙과 제도 배치를 형성하였다. 무역 투자 자유화를 목적으로 한 북미자유무역지대, 아세안자유무역지대 등 지역무역협정은 WTO 다자무역제도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보완으로, 관련한 내용이 목표성을 있다. 국제적인 차원의 제도정책은 국내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각 국가는 WTO의 아래 국가 무역 제도 규칙을 수립하였으며 무역 규제조치에 대해 WTO는 집행 요인을 명확히 하였으나 조사 작업에는 충분한 자유재량 공간이 있어 각 국가의 재량에 차이가 발생하고 마찰을 초래하였다. 기술적인 무역조치,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내용은 WTO제도가 실행 방향만 제공했을 뿐 세칙이 없어 일부 국가에서 편견적인 국내 무역 법규를 적극 제정하도록 하여 합법적인 의미를 지닌 제도의 지원 밑에서 국가경제, 무역이익에 대해 과잉 보호를 하여 세계무역 불균형의 결과를 고조시켰다.<sup>28)</sup>

## 2) 융합성과 복잡성

무역 마찰의 내포된 의미에 따르면 국제 무역 마찰은 소형 기업을 거점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의 거시적인 발전을 방해하는 영향을 미친다. 금융 위기 기간 선진국은 경기하락, 재정적자 악화,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국내 이익집단의 정치적 압력에 밀려 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호무역 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해야 했지만 미래의 국가체제 차원과 전략적 측면에서는 무역 마찰의 가능성을 조성했다. 무역 마찰은 한 측면에서는 국가 간 경쟁력의 싸움이

28) 陳仁新, "中美貿易摩擦的政治經濟學分析", 中國經濟出版社, 2011, pp.183-184.

되어 형식이 복잡하게 변화하고 반덤핑 반보조금 조치와 함께 실시되고 있고 보장 조치와 반덤핑 조치 등이 여러 차례 실시되어 기술적 무역 장벽과 지적재산권 보호의 교체 실시가 점차 무역 마찰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되고 있다. 연합 조치는 무역 보호의 유효성을 높이고 사건의 판결 결과를 수입국의 국내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하였다. 국제 무역 제도의 보장 아래 무역 조치는 최초의 공산품에서 농림과 양식 산업으로 발전하고 노동서비스 무역 분야로 급속히 확장되어 범위가 넓은 상황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온실가스 감소에 대한 글로벌 무역정책이 일반화되면서 세계 주요 경제국들은 신형 에너지산업, 에너지 절약과 오염 물 배출감소기술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경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WTO 규칙은 이미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한 제한된 추가적인 공간을 실현하고 있으며, <관세 및 무역 총 협정>, <보조금 및 보조금 상쇄 조치협약>, <무역기술 장벽협약>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각 국가는 에너지 절약과 오염 물 배출 감소 정책을 수립할 때 동시에 무역 조치의 사용을 참고할 수 있다. 신형 무역 보호 형세인 "탄소장벽"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sup>29)</sup>

### 3) 경향성과 논란성

국제 무역 제도와 WTO 무역 규칙의 구속 하에 국익이 침해되었을 때 적절하게 무역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정한 합리성과 합법성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인 관세, 수입 쿼터, 면허와 같은 무역 조치가 점차 취소되거나 제한됨에 따라, 예를 들어 기술적 무역 조치, 지적 재산권 보호 조치와 같은 비관세류 무역 도구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선진국 및 지역에서 자원 집약적 산업에 대해 편향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수출국 자원의 자연우위를 부인하고, 수출국과의 세계적인 자원 다툼을 벌이고, 자원 집약적 산업을 외국에서 본국으로 이전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생산 능력의 향상과 잉여 노동력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선진국과 지역은 비교 우위를 앞세워 차별 대우의 논란을 피하고 과학기술 산업에서 공정치 못한 구제 방식과 보호 조치를 빈번하게 취함으로써 글로벌 무역의 자유화를 크게 저해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국가들에서 강력히 견제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 급진화를 위해 제

29) 賈中正, “中美貿易摩擦與發展”, 中國金融, 2017, pp.69-70.

정한 산업전환 정책은 선진국의 무역제도 규칙과 충돌되기 쉬운데 조사 기관의 처리방식이 다름으로 인해 국가 간의 무역 마찰이 많고 조정이 어려워 분쟁이 계속되면 WTO에 소송하여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WTO 무역 분쟁 통계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DSU가 접수한 482건 중 양측에서 동의한 해결 건수는 94건으로 전체 안건의 19.5%에 불과하다. 여전히 논의 중인 사안들은 해결이 되길 기다리고 있으며 분쟁이 있는 양측은 더 많은 시간의 소요가 필요하고 자원을 더 많이 소모해야 하는 등 각자의 이익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sup>30)</sup>

### 3. 무역 마찰의 유형

#### 1) 무역 수량 마찰

무역 불균형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막대한 무역 적자가 국제수지 균형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자국들은 무역 수입과 수출을 제한하는 보호 무역 정책을 채택하고 경쟁력이 높은 상품일수록 수입 규제가 심해 무역 마찰을 빚어내고 있다.<sup>31)</sup>

#### 2) 무역 구조 마찰

많은 국가 간의 자원 상황, 기술 수준, 경제 구조, 제품의 단계 등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산업과 상품에서 우위가 달라 세계 시장에서 차별적인 상품으로 진행되는 무역 경쟁이 치열하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국가들이 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관세, 비관세 조치 등을 채택하여 제한하고 있다. 수입 경쟁, 이는 무역 상품 구조가 마찰을 하여 발생된 결과이며 각종 무역 규제 조치는 이러한 무역 구조의 마찰을 반대로 증폭시키고 있다.<sup>32)</sup>

#### 3) 무역 배당 마찰

주요 수입국들이 자국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통제를 하는 문제

30) 王亞飛, 鄭明慧, “中美貿易摩擦的新特点”, 当代經濟管理, 2008, p.9.

31) 周文重, “中美關係的發展与世界格局的演變”, 決策与信息, 2015, pp.45-47.

32) 張萊楠, “如何在中美貿易摩擦升級中化被動爲主動”, 上海証券報, 2012.

다. 외국 상품이 자국 시장에 침입 되어 자국의 동종 산업에 충격을 안겨주고 국내 시장에서 수입 의존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수입국은 수입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항상 통제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시장 구조상, 시장 구조와 상업적 관습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수출 상품이 국가별로 차지하는 점유율도 많이 다르다. 점유율이 낮은 것은 수입국의 시장 장벽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 4) 무역 방식 마찰

보호무역주의는 상품의 국제 흐름에 거대한 방해물 주고 무역 방식은 상품 수출에서 자본수출로 옮겨가는 추세다. 국가는 해외에 직접투자를 통해 생산과 고용을 늘릴 수 있지만 자본소유권의 관계로 자본의 방향, 가공증가 정도 또한 분쟁의 문제로 되고 있어 여전히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 5) 무역 정치 마찰

국제 무역은 국제 정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경제 분야 중 하나다. '국제 경제 관계 자체가 국제 정치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각국이 국제 무역 체계에서 지위를 쟁탈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반영한다.<sup>33)</sup>

### 4. 국제 무역 마찰 이론

#### 1) 완전 경쟁 시장조건

완전 경쟁의 시장에는 많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으며 어떠한 생산자나 소비자도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들은 모두 가격의 수동적 수용자이며, 시장에서 정보와 자원이 자유롭게 유통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정부가 시장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조건 아래 무역을 하는 것은 무역 마찰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양국이 완전 경쟁 시장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 자원 배치 불균형과 경제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

Jagdish Bhagwati 와 R.Jones가 제출한 “Distortion Theory” 이론이 있는데 만

33) 陳珍珍,張建華, “中美貿易摩擦與擴大開放:基于理論和量化研究”, 世界經濟與政治論壇, 2019, pp.29-47.

약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면: 두가지 제품의 국제 무역에서의 한계 전환율 = 두가지 제품의 국내 생산에서의 한계 전환율 = 두가지 제품의 국내 소비에서의 한계 전환율 두 제품 모두 생산 중 노동과 자본의 한계 대체율이 동일하면 팔레토 최적, 즉 자원의 최선의 배치를 형성한다.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시장이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한쪽이 무역에서 이익을 보면 한쪽이 손해를 보고, 한쪽이 손해를 보는 쪽은 무역 보호 조치를 취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무역 마찰이 생기는 것이다.<sup>34)</sup>

다른 하나는 시장의 균형상실을 전제로 한 무역 마찰 이론에 근거한 것인데 그것은 Roy Harrod에 의해 제시된 “무역과 산업 이론”이고 이 이론의 모델 기반은 E.L. Heckscher 이론에 의해 만들어진 특수 요소 모델이다. 이 모델의 가정은 아래와 같다: 단기간에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흐르지 않고 그 가격이 안정한 특징을 가질 경우 한 나라의 수입 증가가 실업률 상승과 소득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 두 가지 결과가 자유 무역이 가져다 준 복지를 초과할 경우 이 나라는 자유 무역을 포기하고 무역 보호를 한다. 무역 장벽, 무역 구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입을 타격함으로써 무역 마찰을 유발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요소의 흐름과 가격 조정, 그리고 새로운 정세에 대한 국가의 적응에 따라 무역 보호 조치가 서서히 종료될 것이다.

## 2) 불완전 경쟁 시장조건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 완전 경쟁은 하나의 이상 상태일 뿐이며 불완전 경쟁이 더 많다. 이러한 현실 기반에 의해 불완전 경쟁 상태에서의 무역 마찰 이론이 생겨났으며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략적 무역 이론, 이 이론은 J.Brander 와 B.Spencer에 의해 1980년대에 제기되었고 후에 Paul R. Krugman 과 Sanford J. Grossman 등을 거쳐 발전 형성 되었다. 이 이론은 한 나라의 정책 관여가 무역의 균형과 자국 기업의 이익 개선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각국이 이러한 무역 관여를 실시할 동기를 갖게 되고, 나아가 무역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적인 무역보호 이론과 이윤이전이론이 외부 경제 이론의 두 갈래이다. 전자는

34) 王亞飛, “貿易摩擦理論研究”, 國際貿易問題, 2007, pp.18-23.

과두의 존재에 따른 초과 이익을 의미하며, 정부는 수입보호나 수출촉진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세계 지분 확대를 통해 이익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 후자는 주로 외부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정부가 비교적 큰 적극적인 외부성의 업종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이 업종이 낮은 원가 우세로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면서 최초 정부 보조금보다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이론은 모두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역 보호를 하고 자국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 무역을 성장시켜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개입은 무역 상대국의 이익을 해치고 상대의 보복을 초래해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둘째, 규모의 경제 이론이다. 이 이론은 Arvind Panagariya, Alfred Marshal, 등에 의해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국가가 상호 무역을 통해 외부성과 규모의 경제를 생성한다고 가정한 다음 이러한 외부성과 규모의 경제를 국제 무역을 하지 않을 때의 상태와 비교함으로써 그 나라가 국제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복지 수준의 변동을 상황을 확정한다. 이 복지 수준이 자급자족하는 복지 수준보다 낮으면 이 국가는 개방 경제를 포기하고 자급자족하는 경제 상태로 돌아서서 무역 파트너와의 무역 마찰이 생기고 반대로 하면 국제 무역을 장려를 진행하게 된다. 이 이론은 또한, 두 나라가 무역을 한다고 해도, 두 나라가 완전히 동일한 요소의 천연 자원이 존재하고 두 나라의 노동 시장이 불완전한 경쟁이라면 양국의

수준 차이도 초래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역 이익 분배가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국가는 상호 무역에서 이익을 얻고 다른 나라는 손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역 마찰을 야기할 것이다.<sup>35)</sup>

### 3) 국제 수지 발전 단계

세계 무역 마찰의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무역 마찰이 많은 것이 국제 무역 수지와 경상 항목의 불균형에 관한 것이며, 국제 수지 발전 단계 확설에 기초한 무역 마찰 이론은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하여 한 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를 그 나라의 국제 수지 구조의 장기적인 변화와 연관시켜 무역 마찰에 대해 설명을 진행한다. 국제무역발전단계설은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의 초기에 투자 수요가

35) 杜金東, “中日貿易摩擦研究”, 南開大學博士學位論文, 2009, pp.24-31.

많고 저축액이 적어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자본 계정의 흑자가 발생하고, 이 나라에서 국내의 희소품을 많이 수입하여 경상 항목 적자가 발생된다. 이때 그 나라의 자본수지 흑자는 총 경상 항목의 흑자와 같을 것이다. 투자가 줄고 저축이 과잉되면 그 나라는 자본의 순수출국이 되고, 이때 자본수지의 적자는 경상 흑자가 된다. 이런 상황을 근거로 한 무역 마찰 이론에 따르면 무역거래가 있는 두 나라는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한 나라의 저축이 넘쳐나고 자본이 풍부해 진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자본은 부족하다. 이때 자본 유동국이 자본부족국에 상응하는 자본을 수출하지 않으면 대량의 경상 흑자가 줄어들지 않고, 후자는 투자 부족으로 국내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서 자본 부족 국가가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 간 무역 마찰과 분쟁이 빚어질 수 있다.<sup>36)</sup>

#### 4) 생산 변화 조건

미국 경제학자 Ralph E. Gomory 와 William J. Baumol은 현대 세계 경제에서 산업 우위 모델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반드시 발전해야 하는 결과일 수도 있고, 아마도 자연적인 이점에 관계없는 몇몇 조건들 중에서 그 나라가 설비, 지식 기술 그리고 인원 측면에서 수립된 우위, 즉 후천적인 이점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 국가는 후천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원하는 무역 모델과 경제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양국의 무역 과정에서 생산성이 비교적 낮은 국가들이 신흥 산업의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면 다른 나라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후진국의 경쟁력 향상은 또한 그 무역 파트너의 이익을 위협할 것이며, 이는 양측의 이익 충돌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얻어진 결론은 국제 무역에는 고정된 이익 충돌이 있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무역 파트너의 국내 임금 수준은 자국 수준보다 낮아야 하며, 이 경우에만 양국의 무역 거래는 상호 덕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무역 분쟁을 일으키기 쉽다고 그들은 생각한다.<sup>37)</sup>

36) 鄒偉偉, “中美經貿關係的歷史發展與政策博弈”, 西南財經大學博士學位論文, 2010, pp.56-68.

37) 盧令成, “中美貿易摩擦的原因及對策研究”, 吉林財經大學, 2017, pp.53-55.

## 제3절 무역 마찰의 원인 및 영향

### 1. 무역 마찰의 원인

무역 마찰은 경제마찰 또한 경제 마찰을 포함한 마찰로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정치 마찰과 문화 마찰을 포함한 ‘복합 마찰’로 이어진다.

미시적 경제 마찰은 일반적으로 무역의 한쪽 대 다른 쪽의 수출 급증으로 이어져 산업별 충돌로 나타난다. 이는 일반적으로 무역 쌍방의 국제 분업에서의 비교적 우위의 변화와 한 나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에 의해 야기된다.

거시 경제 마찰이란 무역 측의 막대한 흑자나 적자에서 비롯된 거시 경제 정책의 마찰을 말한다. 제도 마찰은 무역 쌍방의 제도의 부조화에 의해 야기된다. 이러한 제도의 부조화는 사회 변천에 따른 공업화 사회 규제와 정보화 사회의 규제완화에 의한 마찰도 있고, 규제 완화나 제도 개혁의 속도의 빠른 속도로 인한 마찰도 있다. 국가별 경제 정책, 거래 관행, 경쟁 정책 등에서의 충돌을 보여 준다. 현재 경제적 글로벌화의 국제환경 속에서 서비스업이 산업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제도적인 마찰이 점차 양국 간 무역 마찰을 부르는 중요요인이 되고 있다.<sup>38)</sup>

### 2. 무역 마찰의 영향

#### 1) 관세 측면

최적 관세 이론은 한 나라가 무역 조건의 개선에 따른 수혜 때문에 무역량 감소로 인한 손실을 빼서 차이가 가장 클 때의 관세와, 이때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최대화하고, 무역 조건 개선으로 인한 한계 수익은 과세로 인한 무역량 감소에 따른 한계 손실과 똑 같다.

과세국 과세는 이 나라의 무역 조건을 개선해 주지만 상대국 무역 파트너의 무역조건을 악화시키고 복지 수준을 떨어뜨려 상대의 ‘환율조작국’ 혐의를 포함한 보복을 초래한다. 결국 명분을 내세워 관세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고, 중국의

38) 王領, “中美貿易摩擦的理論研究與實証分析”,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pp.33-35.

반격 수단도 같은 금액의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의 관세 증가율이 상승함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도 증가하고 이에 한편으로는 미국 내 동제품의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무역 보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입품의 가격 상승은 같은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의 미국 수출품은 대부분 노동 집약적 상품으로 일상용품이나 생활필수품, 가격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품목으로 이런 가격이 오르는 쉬워도 내리기는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수요량을 정비레로 떨어뜨리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잦은 관세 증가는 이미 미국 서민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쳤고, 미국의 이번 무역 마찰은 일정 정도에서는 이성적인 행위가 아니다.<sup>39)</sup>

## 2) 기술 측면

미국 경제학자 Ralph E.Gomory 와 William J.Baumol 은 국제 무역에는 고유한 이익의 충돌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가 기술 수준의 진보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그 기술수준이 운용되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산업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증대시킴으로 두 나라는 상대적 생산력이 변화하고, 생산율이 향상되는 쪽이 다른 국가의 이익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 이익의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 중국은 산업 구조 조정을 추진하면서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의 힘차고 빠른 진보를 이루었고, 예를 들어 반도체, 우주, 통신 등의 업종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 진보가 미국의 기술대국 지위를 위협하기 시작하여 미국은 중국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인력과 제품, 시장을 봉쇄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중국 기술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sup>40)</sup>

39) 成夏愉, “中美貿易的新壁壘及我國應對策略”, 天津商業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pp.23-34.

40) 龔夏玥, “中美貿易摩擦及中國應對措施”, 華東師範大學, 2019, pp.17-23.

### 제3장 중·미 무역 마찰의 영향 요인 분석

#### 제1절 중·미 무역 마찰의 내용

##### 1. 중·미 무역 마찰의 현황

중·미 간 무역 협정 체결 이후 양측 간 이익의 충돌과 마찰이 끊이지 않아 전반적으로 평화협상으로 처리됐지만 2018년 이후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분쟁을 자주 주도하면서 중미 간 무역 마찰이 격화됐고, 미국 정부는 미국 국내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중국에 거액의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대응했다. 중미 간 무역 마찰이 계속 상승하고 마찰은 양측에 모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와 같은 영향으로 볼 때 미국이 주도적으로 무역 마찰을 일으킨 것이 미국의 고용과 인플레이션, 수지 불균형 등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국내에서 벌어지는 손실보다도 훨씬 심각하다.<sup>41)</sup>

2019년 6월 20일 새벽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연방 기금 금리 목표 구간 2.25%~2.5%의 변동 없는 인플레이션 전망을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8월 1일 새벽 2시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연방 기금 금리 구간을 2.0%~2.25%로 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실업률과 미국의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모두 통제 목표 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금리 인하가 미국의 미래 경제 리스크에 대한 예단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방적 금리 인하이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미 간 통상 마찰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단기적 적자 반등일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쇠퇴를 위한 준비라는 분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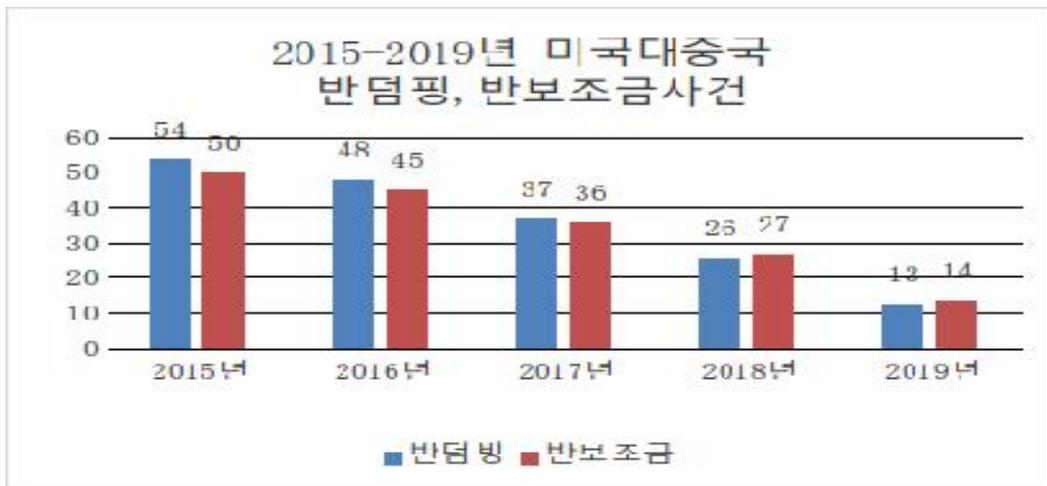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과의 무역 전쟁의 과정, 그리고 중미 무역 마찰을 분석해보면 미국은 기술, 무역에, 외교, 정치 등에서 타격을 주는데 능하며 현재 중미 간 무역 마찰의 현상과 특징,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41) 肖紅, “中美經貿關係史論(1950~2019年)”, 北京世界知識出版社, 2019.

1) 중·미 무역 마찰의 수량

중국과 미국은 세계의 대국이며, 중미 무역 관계는 늘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은 더욱 세계의 관심사가 되었다. 1980년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구제 사건은 더욱 빈번해졌다. <그림3-1>을 보면 2015-2019년 미국의 대중국 무역구제 건수는 반덤핑, 반보조금 총 350건, 2015년 미국은 중국에 대해 104건의 반덤핑 보조금 상쇄 조사와 11건의 '337 조사'를 실시했다. 2019년 말 현재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보조금 상쇄는 총 350건이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다.<sup>42)</sup>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구제안건 중 반덤핑 24건 전년 동기 대비 29.1%, 보조금 상쇄 22건,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 보장조치 2건, 2018년 중미 무역이 침체에 접어들면서 무역 마찰도 업그레이드되었다. 무역 마찰액도 2017년 20여 건 20억 달러에서 2019년 5월 1일 미국의 중국 타일에 대한 반덤핑, 보조금 상쇄 조사에서 4,831억 달러로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sup>43)</sup>



<그림 3-1> 2015-2019년 동안 미국 대중국 반덤핑, 반보조금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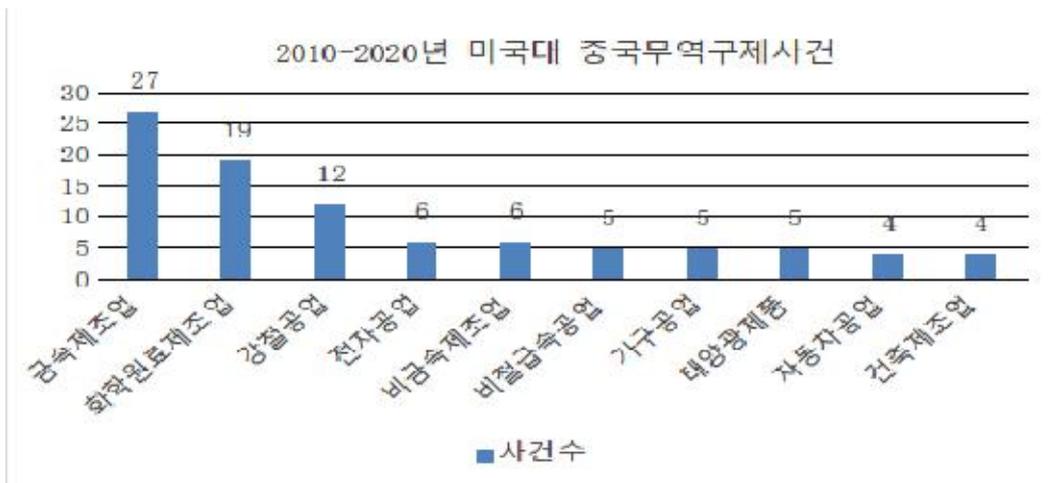
자료: 중국대외구제무역정보(cacs.mofcom.gov.cn)

42) 劉秋蓮, "國際貿易摩擦的類型、原因、效應及化解途徑的研究", 商場現代化, 2018.

43) 鐘雪, "中美貿易摩擦的特征分析及對策探討", 現代營銷(下旬刊), 2018, pp.40-42.

## 2) 중·미 무역 마찰의 범위

<그림 3-2>는 국가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무역 구제 사건은 의류, 가구 등 일부 저급 제품에서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제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중국 발 조사에서는 금속 제조업, 강철 공업, 전자 공업, 화학원료제조업, 태양광제품 등이 포함됐다.<sup>44)</sup>



<그림 3-2> 2010-2020년 동안 미국이 대중국 무역구제사건

자료: 중국대외무역구제정보

## 3) 철강제품이 주요 표적

2006년 중국의 철강은 순수입국에서 순수출국으로 바뀌었고, 중국의 철강산업도 갈수록 마찰을 빚고 있다. 과잉생산으로 인해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이 많아지면서 미국의 철강산업에 큰 압박을 주고 있어 우리나라 철강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의 반덤핑, 보조금 상쇄 등 일부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sup>45)</sup>

44) 韓焯, “中美貿易摩擦影響因素研究”, 中國物價, 2019, pp.47-50.

45) 林學訪, “論貿易摩擦的成因與影響”, 國際貿易, 2007, pp.42-47.

<표 3-1> 2014~2019년 동안 중국 철강 산업의 수출입 총액

(단위: 억 달러)

연도	수출액	수입액
2014	554.86	211.72
2015	492.18	181.95
2016	432.62	169.27
2017	429.80	214.62
2018	468.63	223.91
2019	309.21	165.06

자료: 중국세관, www.customs.gov.cn

2016년 5월 미국은 중국 철강업체 40곳에 대해 '철강업체 조사'를 발기했다. 2018년 트럼프는 '트럼프 조사'를 실시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철에 대해 전반적인 징세를 하였는데 세율은 각각 25%와 10%이다. 우리나라 철강업체는 중미간 무역 마찰의 타격을 크게 받고 있다. 중국 철강제품은 무역구제조사, 반덤핑, 반보조금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미국에 의해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철강제품의 미국에 대한 수출규모는 극히 낮아질 것이다.<sup>46)</sup>

중·미 무역 마찰 속에서 자유무역의 원칙이 깨지고 어느 정도의 보호주의 실시도 징벌의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반덤핑, 보조금 상쇄 등의 조치가 철강제품의 대 미국 판매에 큰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무역 조사는 우리나라의 철강수출 무역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중국의 철강산업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업계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관세율, 금액이 상승

관세 분야에서, 현재 중미는 이미 세 차례의 무역 마찰을 겪고 있는데, 1차는 미국이 중국에 500억 달러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 중국의 반제 조치는 미국의 500억 달러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2차는 미국은 중국에 2천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 2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의 반제조치는 미국의 600억 달러 상품에 대해 액수가 부동한 관세를 부과하였다. 3차는 미국이

46) 肖光恩, “当前中美贸易摩擦的现实难题和解决途径”, 人民社会科学版, 2019.

중국에 3,00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은 미국의 750억 달러 상품에 대해 액수가 부동한 관세를 부과하는 반제 조치를 취하였다. 2019년 9월까지 미국은 중국 5,50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1,850억 달러의 미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고, 관세가 붙는 품목 일부가 제외된 것 이외 이미 중미 양측의 전체 쌍무무역의 총액을 커버하고 있다.<sup>47)</sup>

## 2. 중·미 무역 마찰의 사례

### 1) ZTE 무선통신 장비 사례

<표 3-2> ZTE 무선통신 장비 사례

사건	ZTE 무선통신 장비 사건
원고	미국 Vringo Inc.
소송시간	2012년 8월
소송이유	지적재산권침해
제품유형	전기기계
입안시간	2012년 10월
피고	중국 ZTE Corporation
최종 판결 결과	합의가 된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50만 달러를 지불한다.

자료: www.sina.com 사례보고서를 통해서 정리 작성

ZTE 회사와 브링고회사의 마찰분쟁은 2012년부터 시작한다. 2012년 8월에 브링고회사는 누키아(Nokia)와 특허구매협의를 체결하여 220만 달러의 가격으로 무선통신기술, 전신네트워크 기반장비, 인터넷검색과 이동식 기술 등 500여개 특허를 구매한다. 이런 특허를 최대한 빨리 현금화하기 위해서 브링고회사는 먼저 영국에서 ZTE회사를 상대로 지적 재산권침해소송을 걸었다. 내용은 ZTE회사가

47) 孟令偉, “中美貿易摩擦的根源及應對措施研究”, 現代經濟信息, 2019, pp.21.

브링고 회사가 보유한 셀룰러 네트워크 기술과 GSM/UMTS 멀티모드 무선이동 핸드오프 기술을 침해하였다. ZTE회사는 신속하게 각 국가에서 적극적인 응소로 대응하고 여러 국가 법원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브링고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2월 24일에 ZTE회사는 선전에서 독점 방지소송으로 브링고 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고발한다. 한달 후에 ZTE회사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브링고 회사에 대한 독점 방지 조사를 청구한다. 브링고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ZTE회사는 비밀정보를 유출한다. 반면, 브링고 회사는 소송과정에서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2014년 7월 2일에 브링고 회사는 ZTE회사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미국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낸다.

2015년 8월 12일에 법원은 특허, 독점금지, 계약서와 형법 등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27페이지의 의견서를 내린다.

2015년 12월 9일에 브링고 회사가 ZTE회사와 협의를 달성한다. 결과는 ZTE회사가 브링고 회사에게 지불하는 현금 2150만 달러를 쌍방의 쟁의가 있는 특허의 영구적인 통상실시권에 쓰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브링고 회사는 금액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현재 있는 모든 소송을 철회해야 한다.<sup>48)</sup>

ZTE회사는 전반적인 정세를 고려하여 여러 국가의 법원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브링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심사요구를 청구함으로써 유리한 조건을 얻어 냈지만 성실함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브링고 회사가 특허관리전문회사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 성실한 행동으로 법원의 인정을 받아낸다. 반대로 ZTE회사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유출하였기에 법원의 신뢰를 잃었고 미국 소송과정에서 소송당사자가 어떤 사소한 일을 어설프게 처리하면 재판관과 배심원단에게 성실하지 않다는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이는 패소를 초래한다.

---

48) 李計, 羅榮華, “中興事件”案例視角的中美經貿未來發展”, 中國流通經濟, 2019, pp.53-62.

## 2) 화웨이 스마트폰 사례

<표 3-3> 화웨이 스마트폰 사례

사건	화웨이 스마트폰 사건
원고	미국 인터디지털
소송기간	2011년 7월
소송이유	특허침해
제품유형	전기기계
입안시간	2011년 8월
최종 판결 결과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도달한다.

자료: www.sina.com 사례보고서를 통해서 정리 작성

2011년 7월 26일에 인터디지털은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고 판매하는 3G기능을 가지고 있는 휴대폰, 무선 네트워크 장비, 노트북 컴퓨터 등 제품이 특허침해행위가 있다고 고발하였다. 이는 미국관세법 337조사를 위반하였기에 인터디지털은 화웨이에게 337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미국 USITC에게 신청하였다. 이번 소송은 2011년 8월에 정식 입안하였다.

화웨이는 한편으로 337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법률을 충분히 이용하여 중국국내에서 인터디지털을 상대로 독점 방지조사를 실시한다.

2013년 1월에 인터디지털은 USITC에게 화웨이 스마트폰에 대해 337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2013년 2월에 정식 입안한다.

2013년 6월에 USITC 행정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화웨이가 특허침해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초기판결을 내린다. 12월에 USITC는 미국관세법 제337조와 미국연방규정집에 근거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조사를 중지한다. 2014년 초에 화웨이와 인터디지털의 협의 달성으로 모든 사건이 끝난다.<sup>49)</sup>

중국국내에서 화웨이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인터디지털에 독점 방지 조사를 실시하였기에 인터디지털은 소송에 연루되고 중국 선전시에서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화웨이는 중국과 미국 소송에서 연승

49) 王正蒙, “中美貿易戰背景下我國高新科技行業產業政策的反思與調整——基于華為事件的啓示”, 新產經, 2019, pp.91-96.

을 거두면서 인터디지털과 담판의 유리한 조건을 받음으로서 특허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이익을 얻어냈다.

### 3) 농업기계 사례

<표 3-4> 중국 농업기계 사례

사건	농업기계 사건
원고	미국 Deere Company
사건에 연루된 제품	농업기계
제품유형	전기기계
중국 피고	Jiangsu Yueda Group Changzhou Dongfeng Agricultural Machinery Group Jiangling Motors Import Export
최종판결 결과	원고와 동풍회사, 장링회사가 협의를 달성한다.

자료: www.sina.com 사례보고서를 통해서 정리 작성

존디어는 USITC에 337조사를 신청하여 5개 국가의 24개 회사의 제품의 미국 수출 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농업기계가 자신의 황녹색 상표를 침해하여 이 색상 상표가 “색을 잃었다”고 고발하였고 이 농업기계들이 존디어회사의 제 1254339호, 제1502576호, 제1503576호, 그리고 제 91860호 미국특허를 침해하였고 미국관세법 제337조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중국의 장쑤웨다회사, 동풍회사, 장링회사 등 3개 회사가 피고의 리스트에 올랐다.

2003년 2월 7일에 USITC는 존디어 회사의 신청을 정식 접수하여 337조사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그 달 13일 정식 입안한다.

2003년 2월 27일에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은 각자 USITC에 제소를 신청한다. 그 중 두 개의 기업에서 연합하여 제소하고 나머지 한 개 기업은 자신의 미국에서의 수입사를 통해 단독 제소한다. 미국 수입상의 건의로 중국에서 단독 제소한

기업은 8월 달에 존디어와 협의를 달성했다. 중국의 이 기업은 미국시장에서 퇴출할 것을 동의하였다.

2003년 9월 2일에 행정법관은 협의의 기초로 장쑤웨다회사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다고 제1심 판결을 반포하였다.

2003년 10월 22일에 USITC는 미국관세법 제337조사와 미국연방규정집 제 210.41-51조에 따라 협의를 동의한다는 명령을 서명 발급하여 동풍회사와 장링회사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는, 337조사의 대상자가 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침해 행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기업은 옹당 두려움을 피하고 객관적인 사건분석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기초하여 합리적인 제소 전력과 적극적인 제소를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 4) 소결

중국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의 제고에 따라 일부 제품은 미국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은 337조사를 이용하여 중국제조업제품의 미국으로의 수출을 억제함으로써 자신의 제품을 보호한다. 미국은 보호무역하기 때문에 중국이익이 손실했다. 중국은 반제 조치 실시해서 중·미 무역마찰이 발생했다.

중국기업이 특허분쟁에서 승소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원인은 기업의 적극적 제소와 적극적 협력 심지어는 연합제소, 제소과정에서의 꾸준한 대응, 적극전인 대응방법 조정, 중국의 법률을 이용한 항소 조치 등이 있다. 중국 전지공업협회는 업계의 모든 힘을 연합하여 제소하고 권익을 옹호하며 적극적 항변을 통해 전지 사건의 승리를 거두었다. 화웨이는 꾸준한 침해행위가 없다는 항변과 제소과정에서의 신속한 전략조정과 중국법률의 응용을 통해 효과를 보았다.

중국기업이 특허분쟁에서 패소하는 주요원인은 비적극적인 제소, 신용의 결핍, 소송비용의 높음과 특허보호 의식이 차한 등 요소가 있다. ZTE회사가 비밀유지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신용을 어겨 패소하였다. 중국기업은 특허상표에 중시하지 않아 특허상표등록이 빠앗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식이 차한 것은

사례 중 많은 강화마루 업체의 패소로부터 알 수 있다. 동시에 미국 337조사는 과정이 복잡하고 소송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 제소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패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사건 중에서 제소전략은 비록 중요하지만 지적재산권의 보호의식의 증가와 기업 자주의 창조력 제고야말로 중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조사에 대한 근본적 조치이다.

### 3. 중·미 무역 마찰의 특징

#### 1) 장기성

2017년 트럼프 집권 이후 우리나라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미국 우선'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11월에는 우리나라와 2,535억 달러의 무역 협정을 맺고 귀국하자마자 우리나라에 대한 '쌍반조사'(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2017년이 중미 무역 마찰의 시작이라면 2018년은 중미 무역 마찰의 업그레이드 단계다. 2018년 미국은 세탁기, 태양광 제품에 차례로 관세를 부과 하였는데 금액은 5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 관세는 10%에서 30%로 올랐다.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태도로 중미 무역의 발전마저도 변덕스러우며, 중미 무역 마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번 무역 마찰은 5년-10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sup>50)</sup>

중미 무역 마찰의 장기성은 중국이 장기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대응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의 변덕스러운 압박은 중미 무역 마찰의 불명확한 특징을 가져왔다. 중미 간 힘의 격차는 이번 무역 마찰에 큰 어려움을 주었지만 일부는 중국 내부의 타협성 이었다. 중미 간 무역 마찰에 대한 중국 여론이 엇갈리고, 중국의 지나친 자신감과 미국의 압박으로 이어지고, 미국의 반제로 무역 마찰이 고조된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지나친 자신감과 이상론이 미국의 압박으로 이어지고, 미국의 압박에 직면하여 중국은 반제 하지 말아야 무역 마찰이 고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일부는 미국과의 과학기술 격차가 매우 커 미국과 맞서는 것은 주제 파악을 못

50) 吳明明, "特朗普政府下中美貿易摩擦分析", 上海社會科學院, 2018, pp.40-47.

한다는 시각도 있다. 내부 사상이 통일되지 않은 것은 중국이 마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장기 무역 전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sup>51)</sup>

## 2) 광범위성과 복잡성

중미 무역 마찰은 광범위성과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주로 무역 마찰로 표현되는 수단의 다양성으로 기인이 비교적 복잡하다. 반덤핑, 보조금 상쇄, 녹색 장벽, 기술 장벽, 지적재산권 장벽, 수출규제 조사 등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무역 마찰을 일삼는 수단이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역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은 더욱 복잡하다. 이번 무역 마찰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 마찰의 원인은 중미 간 무역적자라는 사실은 미국의 핑계일 뿐이며, 이면에는 더욱 깊은 문제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정책을 펴왔으며 중국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억제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목표의 실현을 막으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으로는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이 미국의 60%에 이를 때 상대를 전략적 라이벌로 간주해 압박하는 것이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래 경제가 급속히 성장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으며, 정치, 경제, 과학기술에서 미국을 앞지르면서 미국 경제 강국의 위상이 위협받고,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미국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 주었다. 하여 중국은 자연스레 미국의 전략 적수가 되었다.<sup>52)</sup>

## 3) 확장성과 국제성

경제 글로벌화는 이번 중미 무역 마찰에서 다른 나라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도록 운명적일 수밖에 없다. 중미 무역 마찰은 확장성과 글로벌적 이어서 그 여파가 투자, 통화, 기타 영역, 심지어 다른 나라들로도 이어진다. 중국은 세계 공장이지만 우리나라는 수요 가치 사슬의 아래쪽에 놓여 있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중국의 수출 제한은 중국뿐만 아니라 그 여파가 공급 사슬, 산업 사슬, 그리고 가치 사슬로부터 미국, 유럽연합, 독일, 한국 등 나라에 영향을 미치

51) 余森杰, 金洋, 劉亞琳, "中美貿易摩擦的緣起与對策——一个文獻綜述", 長安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8, pp.42-47.

52)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与世界貿易組織", 白皮書, 2018年6月28日.

며 다른 나라가 중국에 대한 투자이익에도 영향이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에 수출하는 500억 달러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 품목의 70%는 미국 기업에 공급되는 중간 품목이며, 세금을 더 올리면 반드시 미국 기업의 이윤이 떨어지고, 또한 미국의 200만 명의 인원이 실업을 하게 된다. 한편 이번 중미 간의 관세전쟁으로 유럽 자동차 주식이 큰 손실을 입고 독일이 큰 피해를 보았다. 2019년 5월 13일 중국의 반제 조치 발표 이후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의 주식이 매도를 당해 거의 모든 유럽의 대형차 업체 주식의 하락폭이 1%를 넘어 전체 산업 공급 체인이 충격을 받았다. 프랑스 유로타임에 따르면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 유럽 자동차 관세가 편입돼 유로화 경제에 영향을 미쳐 2020년까지 전 세계 무역액이 9%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53)</sup>

#### 4. 중·미 무역 마찰의 발전 과정

1979년 중미 <중미 무역 협정> 체결 이후 양국 경제 무역이 계속 증가하고 중미 양국 협력 분야의 확대와 무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국 간 무역 마찰도 증가하여 양자 간 무역의 초점으로 되었다. 1980년 미국의 대중국 화학산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중미 간 무역 마찰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2001년 정식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타국과의 무역이 점차 늘어 감에 따라 중미 간 무역 마찰은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역 마찰의 성격과 특성을 결합하여 구분을 한다면 역사적으로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단계1 : 1979 - 1989년 은 양국 간 무역 마찰의 시작 단계다. 1979년은 중미 양국 수교를 한 해이기 때문에 그 10년 동안 양국 간 무역액은 그다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1979년 양국의 무역액은 25억 달러 미만이었다. 또한 1979부터 1989년은 중국이 개혁 개방의 초기 단계였고 당시 국문 개방이 절박했던 중국은 외국의 무역 합작에 적극 참여하였다. 당시의 중국으로선 직물, 저부가가치의 경공업제품, 화공자재 등 노동 집약형의 제품이 중미 무역에서 우위를 점했기 때문

53) 閔克遠, "中國對外貿易摩擦問題研究", 東北師範大學, 2019, pp.23-24.

에 이때의 무역 마찰도 대부분 이런 상품에 집중됐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979~1989년 동안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덤핑 사례는 총 18건이며, 농축산물과 기전은 각각 1건으로 같은 기간의 전체 대중 반덤핑 물량의 5.5%를 차지했다. 방직품은 3건으로 같은 기간 모든 대중국 반덤핑 물량의 16.6%를 차지했고, 경공업은 6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대중국 반덤핑 물량의 33.3%를 차지했으며, 화공은 7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대중국 반덤핑 물량의 38.8%를 차지했다. 당시의 중국은 경제력이나 정치면에서 미국과 전혀 비교가 안 되었고 미국 측이 반덤핑, 협상 타결, 수출입 관세 인상 등을 통해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려 할 때 화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으로 양보하는 역할을 맡아 무역 마찰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볼 수는 없었다.

단계 2 : 1990년-2000년은 양국 간 무역 마찰의 상승 단계였다. 이 단계 중미 무역 마찰의 주요 특징은 정치적 요인이 많이 섞여 있다는 점이다. 해외에서는 80년대 말 동유럽이 급변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세계 판도가 크게 바뀌었다. 중국은 사회주의 라인의 일원으로 미국의 주요 적수가 돼 중미 관계가 긴장 되었다. 국내에서는 1989년의 '6.4' 과동으로 인해 중미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미국은 국내외의 이중압박에 힘입어 대중국 무역 마찰 문제의 처리 수위를 높였다. 처리 수단은 반덤핑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제재'라는 수단도 썼는데 특히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의 고신기술 무역을 제한하였다. 처리 범위도 경공업, 방직업 등에서 지적재산권, 화공, 철강 분야 등으로 확대됐다. 또 당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신청하는 단계였고 미국은 중국의 인권문제, 노동재개 제품 수출 등을 문제 삼으며 중국의 영구적 최혜국 대우를 거부해 왔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최혜국 대우에 대해 매년 심의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2001년에서야 폐지되었고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미국의 영구적 정상무역관계를 선언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1990년-2000년의 동안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은 총 61건이었으며 이 중 경공업 25건은 같은 기간의 모든 대중 반덤핑 물량의 40.98%를 차지했고, 화공품은 18건으로, 같은 기간의 모든 대중 반덤핑 물량의 29.5%를 차지했으며, 농축산물과 오광류 제품은 각각 8건으로 같은 기간의 모든 대중 반덤핑 물량의 13.11%를 차지했다. 기전과 의료보험은 1건으로 같은 기간

의 모든 대중 반덤핑 물량의 1.63%를 차지했다. 이렇게 반덤핑 행위의 빈도는 갈수록 많아졌다.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종합 국력이 계속 강해지면서 세계에서의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고 중미 무역 마찰 속에서 점차 능동적 반격과 자기 보호에 나서고 있다.

단계 3: 2001년부터 현재까지는 양국 간 무역 마찰의 빠른 발전 시기다. 2001년 이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 공식화되면서 중미 양국의 무역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입회는 예상한 것처럼 중미 양국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다. 정반대로 양국의 마찰은 수량, 제품의 범위, 나아가 마찰 금액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 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덤핑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 2009년과 2013년에는 반덤핑 건수가 절정에 달했다. 2018년 3월 22일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 '301 조사' 진행"중국의 600개 수입 상품에 대규모의 관세 부과했다. 현재 중미는 이미 세 차례의 무역 마찰을 겪고 있는데, 1차는 미국이 중국에 500억 달러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 중국의 반제 조치는 미국의 500억 달러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2차는 미국은 중국에 2천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 2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의 반제조치는 미국의 600억 달러 상품에 대해 액수가 부동한 관세를 부과하였다. 3차는 미국이 중국에 3,00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중국은 미국의 750억 달러 상품에 대해 액수가 부동한 관세를 부과하는 반제 조치를 취하였다. 2019년 9월까지 미국은 중국 5,50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1,850억 달러의 미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했고, 관세가 붙는 품목 일부가 제외된 것 이외 이미 중미 양측의 전체 쌍무무역의 총액을 커버하고 있다.

이때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반덤핑과 특별보장의 빈도도 예전보다 훨씬 높았다. 이것은 중미 무역이 계속 늘어나고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미국의 전반적인 무역적자 비중이 커지고 중미 무역의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면서 미국 국민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균형의 문제는 무역 마찰을 거시적 경제 차원으로 까지 확대시켰다. 또 미국 의회와 이익 집단은 중미 무역

의 불균형을 빌미로 대중 무역 보호 정책을 장려해 자신들의 이익을 충족시키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중미 무역 마찰의 세 가지 발전 단계에 대한 회고를 통해 우리는 중미 반덤핑 사건 수량 하고 관세율, 금액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해 무역 마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초기 단계의 수동적 응전, 타협적 양보가 아닌 중미 무역 마찰의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와 경제 무역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우리는 논리에 입각하여 끊임없이 균형을 찾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일치한 점은 취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sup>54)</sup>

## 제2절 중·미 무역 마찰의 영향 요인 분석

### 1. 중·미 무역의 균형 상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 마찰을 일으키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미중 무역에서 미국은 항상 적자를 기록했고 중국은 흑자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두 나라의 차액이 비교적 클 때, 적자를 본 측에서는 양자 간 무역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적자를 줄일 것이다.<sup>55)</sup> 그래프를 보면 중미 양자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 총액이 계속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4) 鄧麗莎, "中美貿易摩擦發展歷程分析", 經濟管理論文, 2019, pp.2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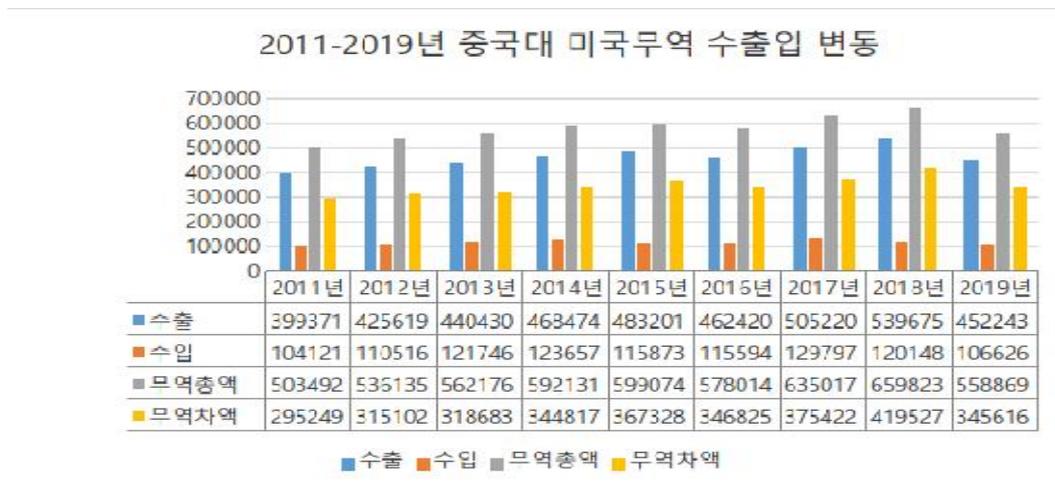
55) 張時, "我國國際貿易摩擦的特点、原因及對策分析", 中國商界, 2017.

<표 3-5> 2011-2019년 동안 중국이 대미국 무역 수출입의 변화

(단위: 십억 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차액
2011	399,371	104,121	503,492	295,249
2012	425,619	110,516	536,135	315,102
2013	440,430	121,746	562,176	318,683
2014	468,474	123,657	592,131	344,817
2015	483,201	115,873	599,074	367,328
2016	462,420	115,594	578,014	346,825
2017	505,220	129,797	635,017	375,422
2018	539,675	120,148	659,823	419,527
2019	452,243	106,626	558,869	345,616

자료: U.S.Census Bureau. [www.census.gov](http://www.census.gov)



<그림 3-3> 2011-2019년 동안 중국이 대미국 무역 수출입의 변화

자료: U.S.Census Bureau. <http://www.census.gov>

중·미 1차 무역 적자는 1983년에 출현했고 무역 적자액은 3.1억 달러이다, 이후 천천히 확대되는 상황을 보였다. <표 3-5>를 보면 2011년에는 295,249억 달러를

기록한 뒤 2012년부터 중미 무역 적자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315,102억 달러에서 2019년 345,616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했다. 중미 무역 적자가 커져가고 미국이 중국에 각종 수단을 사용한 무역 제재로 무역 마찰이 격화되고 중미 무역 적자가 확대되면서 중국은 미국의 무역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따라 중미 무역 적자가 계속 늘어 중국과의 무역 마찰도 커질 전망이다.

## 2. 미국 ‘반덤핑’ 및 ‘반보조금’ 정책

경제 글로벌화의 배경을 뒤로하고, 글로벌 생산 가치 체인의 분업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 배치와 전문화 분업 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기술 우위를 앞세워 가치체인의 분업에서 첨단 부분을 유지하며 낮은 수준의 가치체인 체계를 개도국으로 이전했다. 글로벌 시스템에서의 가치 체인의 세분화에 의해 중간 제품 무역이 매우 성장해 중국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부품 등 중간제품이 중국산의 아이콘이 되어 대량의 중간품의 대미 수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미 무역 적자는 전 세계 가치 사슬에서의 역할 분담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일부 이익 집단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저가 경쟁, 나아가 중국의 미국산 수출에 대한 보조금 상쇄, 반덤핑 조사로 그 원인을 돌리면서 중미 간 무역 마찰을 빚고 있다.<sup>56)</sup>

중미는 글로벌에서 가장은 2대 경제체이다. 두 나라의 경제 무역 관계의 향방이 글로벌 경제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미국의 무역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계속되면서 중국의 미국 상품 수출에 대한 반덤핑, 보조금 상쇄 수사가 계속 증가하면서 무역소송 구제가 늘고 있어 중미 간 통상 마찰도 계속 커지고 있다.

트럼프 집권 이후 무역보호와 일방주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가능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해 미국의 이익을 지켜내어 중미 양국의 무역 마찰은 계속 증폭되고 있다<sup>35</sup>.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보호주의는 중국 산업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 하위 산업의 공급 업체, 제조업체, 소매업자에게도 피해를 준다. 중국은 2013~2018년 6년 간 연속 미국의 반덤핑 보조금 상쇄 조사와 양자

56) 王旭陽, "合則兩利, 斗則俱傷——中美經貿關係在摩擦中前行", 現代管理科學, 2018.

합동조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 2018년 미국 상무부에서 개시한 반덤핑 조사는 80건으로 중국에 대한 건수만 18건으로 22.5%의 비례를 차지한다. 보조금 상쇄 조사 40건 중국에 대한 건수는 15건으로 37.5%이다. 쌍반 합동조사가 39건, 중국에 대한 건수는 14건으로 35.9%를 차지한다. 쌍반세 명령이 건수는 54건이고 중국을 겨냥한 건수는 19건으로 35.1%였다.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쌍반 조사는 사안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빈도가 높고 분야도 광범위하다.<sup>57)</sup>

### 3. 지적재산권 분쟁

미국의 시각에서는 중국은 미국기술을 강제적으로 배웠고, 불공정 무역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미국의 국익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국제 무역에서 항상 중요한 대상이자 법적 문제인 지적재산권,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의 미국 지적재산권 침해로 중국에 무역 마찰을 일으켰다. 이에 더욱 깊은 이유는: 지적재산권 보호 명분으로 중국의 급속한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다.<sup>58)</sup>

최근 몇 년 동안 중미 간의 무역 관계를 보면 지적 재산권은 오랫동안 논쟁거리였다. 이미 20세기 90년대에 중미 양국은 어려운 협상을 거쳤으며, 결국 1992-1996년에 잇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세 가지 양자 협의가 이루어졌다. 1996~2004년 양국 간 관계가 호전되어 지적재산권 분쟁이 잠시 종식되었다가 2004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2008년 중국의 혁신적인 국가 건설을 위한 전략적 목표 아래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외부에서 추동하는 발전보다 내적인 동기가 생겼다. 미국이 또다시 무리한 책무를 거론한 것도 우리의 지적재산 체계가 아직 미흡하다는 빙증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는 2019년 중국에 대해 <표 3-2>에 나타낸 것처럼 6차례의 '301 조사'를 공식화했다. 앞의 5차례의 조사에서 중미 양국은 모두 무역 협상을 통해 의견 일치를 보았으며, 관련 무역 협정을 체결 하였다. 하지만 2017년

57) 丁佳慧, 侯冰心, 焦蒙丹, 劉珩, "中美貿易摩擦及其解決對策研究", 現代商業, 2018.

58) 帥建林, "中美貿易摩擦的特征分析", 中國商界, 2010.

8월 시작된 6차 '301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보호주의와 글로벌 정책의 영향아래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sup>59)</sup>

<표 3-6>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실시한 '301 조사'

연도	원인	미국의 조치	결과
1991.04	중국 특허법 결함, 미국 저작권, 상업 비밀과 상표에 대한 보호 부족	15억 달러 리스트100% 관세를 추가 부과	중미, 지적재산권 보호협정 체결. 중국 지적재산권 법 개정 약속
1991.10	미국 상품이 중국 시장에 들어왔을 때 불공정한 장벽에 부딪쳐, 중국 시장에 추가 개방을 요구함	39억 달러 리스트, 징벌 관세를 추가 징수	중미는 협상을 통해, 중국은 미 상품에 대해 향후 5년간 수입 장벽 철폐 약속
1994.06	지적재산권 보호를 보완하여 저작권 침해, 상표 침해 및 시장접근 문제 해결	10억 8,000만 달러 리스트100% 관세를 추가 징수	중미 두 번째 지적재산권 보호 합의
1996.04	지적 재산권 미비, CD 공장 범람	30억 달러 리스트 징벌적 관세를 추가 징수	중미, 지적재산권 보호협정 세 번째 합의
2010.09	친환경 에너지 보조 정책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토론	중국은 정책 중 보조금 금지 혐의 내용을 수정하는데 동의했다
2017.08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 침해행위를 하고 있다는 핑계로 '301조사' 개시	미국은 중국과 협상하여 해결 할 것에 동의, 절차는 1년간 지속	

자료: 중국대외무역구제정보(cacs.mofcom.gov.cn)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337 조사'는 <표 3-6>와 같이 '337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중국 기업이 143건으로 전체의 28.11%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미국이 중국 화웨이, 중흥 등 글로벌화 정도가 높은 통신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더 빈번하다.<sup>60)</sup>

59) 曲越, 秦曉鈺, 黃海剛, "中美貿易摩擦對中國產業與經濟的影響——以2018年美國對華“301調查”報告為例”, 2019.

<표 3-7> 2011-2019년 동안 미국이 대중국 기업 실시한 "337 조사" 상황

연도	세계 전체	중국 관련 기업수	산업 분석							
			기전	화공	경공 업	의약	생화 학	의료 기계	화장 품	철강
2011	69	16	13	0	0	2	0	0	0	0
2012	40	13	10	2	1	0	0	0	0	0
2013	42	13	9	1	2	0	0	1	0	0
2014	39	12	7	1	4	0	0	0	0	0
2015	35	11	7	0	1	0	0	2	1	0
2016	54	23	10	2	6	0	1	3	0	1
2017	59	22	4	0	4	0	0	1	0	0
2018	50	19	2	0	4	0	0	0	0	10
2019	48	14	0	0	0	0	4	0	0	2

자료: 중국대외무역구제정보, cacs.mofcom.gov.cn

또 이번 미중 무역 마찰 과정에서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은 주로 중흥통신의 미국 내 부품구매 금지이며, 금지시간은 7년 이었다. 2018년 6월 중흥이 미국 정부와 합의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이사회를 개편하여 무역 금지령을 해제하였지만 우리는 지적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 4. 중국의 급속 발전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는 뚜렷하게 상승해왔다. 경제와 과학기술 방면에서 큰 성과를 달성해왔으며 국제적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쇠퇴하고 정체되었고, 세계시장에서의 위상도 많은 산업에서 중국이 일인자로 등극하였으며, 일부 전기전자, 항공산업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도 중국은 미국의 기술력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경쟁상대로 성장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 하이테크 기술 등 중미 지적재산권마찰에서 언급했듯이 중미 수출입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중미 간 무역마찰로 이어져왔다.

중국의 개혁 개방 40년 이래, 중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종합 국력도

60) 吳紅亮, "國際貿易中的摩擦問題探討", 財經界(學術版), 2018.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1978년 3,679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GDP는 2018년 90.03만억 달러에 달해 성장속도가 미국 경제의 비상시기(1870~1913)를 앞질렀다. 또한 1978년 206.4억 달러였던 중국의 화물 수출은 세계 29위에서 2017년 41,050억 달러로 성장했고, 현재 중국은 130여개 국가와 무역관계 중 제1의 파트너로 세계 1위 무역 국가로 부상했다. 중미 양국의 GDP와 세계 점유율 <표 3-8>과 같이 중미 무역의 성장 속도는 근접해 가고 있고 양국 무역 차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표 3-8> 중미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연도	중국		미국	
	GDP(만억달러)	세계에서 비중	GDP(만억달러)	세계에서 비중
2011	7.46	10.17%	15.54	21.18%
2012	8.30	11.05%	16.19	21.57%
2013	9.40	12.17%	16.78	21.73%
2014	10.35	13.05%	17.52	22.09%
2015	11.00	14.66%	18.21	24.28%
2016	11.20	14.71%	18.70	24.56%
2017	12.25	15.13%	19.48	24.07%
2018	13.60	15.84%	20.54	23.91%
2019	15.50	16.59%	21.43	24.75%

자료: 중국상무부

세계 2위의 경제국인 중국은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영향력과 지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세계 다극화, 경제 글로벌화, 사회 정보화의 발전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와 점점 더 민감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미국의 높은 관심과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우려는 날로 깊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혁신적인 국가 건설을 강조하며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을 수립하고 '일대일로'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을 선도하고 있다. 이 모든 행위들은 미국에 엄청난 경쟁 압력과 잠재적 위협을 느끼게 한다.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접촉형에서 억제형으로 되돌리자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고, 중국의 새로운 시대적 욕구에 대해서도 심각한 오판과 곡해가 있었다. 2017년에는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 '2018년 미국 국방전략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중미 무역 마찰에서 미국의 전략적 의도는 아

주 분명한데 앞으로 중국 경제의 질 높은 발전 과정에서 더 많은 이익을 도모하려는 미국 정부의 현실적인 타산이 이번 중미 무역 마찰의 지속성을 결정한다.<sup>61)</sup>

중국의 경제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금융, 수출입 무역 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손을 대며 각종 마찰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마찰을 증폭시키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강도 높은 압박으로 중국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 5. 중·미 무역 비대칭 의존관계

### 1) 무역의존도 정의

Albert O. Hirschman 은 국가가 어떻게 무역 관계를 권리와 영향으로 전환시키는가의 관점에서 의존도를 관찰한다. 무역의 상호 의존은 다른 나라를 겁박하는 수단으로서 "A국이 B국, C국, D국 등 국가에 대한 통제를 늘리면 A국가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며, 이러한 환경속에서 다른 나라들은 A국가와의 무역유지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밖에 없다."<sup>62)</sup>

Robert Keohane, Joseph Nye은 '권리와 상호의존'에서는 상호의존 즉 '서로 상호 의존'이 '국가간 또는 서로 다른 국가의 행위체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우' 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상호 의존이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결과'이며 대가가 없다면 서로 연결될 뿐 상호 의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호 의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그들은 상호 의존의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이라는 두 가지 상호 의존의 중요한 특징을 정의한다. 민감성은 한 국가의 변화로 인해 다른 국가의 대가가 발생하는 변화가 얼마나 빠른가를 의미하며 취약성은 행위체가 외부 사건에 의해 강요된 대가로 인해 손실되는 정도를 말한다.<sup>63)</sup>

Katherine Barbieri 도 양면으로 상호 의존을 정의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민감성과 취약성을 '현저성'(salience)으로 귀결한다. 현저성이란 "다른 무역관계에 비해 어느 한 무역관계의 중요도"를 말한다. 무역을 하는 두 나라에서 무역이 한

61) 王歡, “中美貿易摩擦的原因與對策研究”, 蘇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15.

62) Albert O. Hirschman,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63) Robert Keohane, Joseph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Glenview, Minois: Scott, Foresman Company“, 1989, pp.8-9.

나라에 대한 현저성과 다른 나라에 대한 현저성은 다르다. 예를 들어 중국과 미국의 무역은 중국의 대외무역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은 미국의 대외무역 중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낮은 현저성은 민감성과 유사한 반면 높은 현저성과 취약성은 근사하다. Barbieri의 상호의존적 정의의 두 번째 측면은 대칭성(symmetry)이다. 대칭성은 양국의 무역 관계에서의 균형 문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완전 대칭이란 양국이 서로 상통하면서 서로에 의존하는 것이고 불완전대칭은 한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아예 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sup>64)</sup>

상호 의존의 정의에는 세 가지 주요 공통점이 있다. 첫째로, 3자의 가장 큰 공통점은 상호 의존은 모두 코스트가 있다. 둘째, 상호 의존은 국가권력이나 안전 사이의 관계에 관계된다. 셋째, 무역 상호의존의 비대칭성은 국가권력에서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다.

## 2) 비대칭 무역의존도의 판단

무역 상호의존의 비대칭이란 상호의존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B측의 A에 대한 의존보다 A에 대한 의존이 더 크다면 B측이 대칭적인 상호의존도에서의 우세라고 볼 수 있다.우위에 있는 쪽이 우세한 권력을 형성하고,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약한 쪽을 상대로 무역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Barbieri는 상대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상대국과의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지표로 고려해 본다. 첫번째 지표의 경우 A국 대 B국의 수출이 A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B국 대 A국 수출이 자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높다면 A국은 A, B양국의 비대칭적 상호 의존에서 약세이고 B 국은 우세인 쪽이다. 그러나 그녀는 국내총생산(GDP)이 상호 의존과 그 비대칭성을 측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사실 높은 무역 점유율이 반드시 높은 상호 의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국과 B국

64) Katherine Barbieri, "A Path to Peace or a Source of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2001, pp.29-49.

의 무역이 B국 무역 총액의 100퍼센트를 차지하더라도 B국의 GDP 총량이 크고 전체 GDP에서 무역액의 기여도가 작다면 이에 따라 B국과 A 사이에 높은 상호 의존도가 존재하고 B국이 비대칭적 의존의 불리한 쪽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본 문서는, 무역 상호 의존의 비대칭성을 측정할 때, 국가간 무역 상황과 각각의 GDP를 비교해야 한다.<sup>65)</sup>

무역 의존도 TRD는 국가 간 무역 상호의존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이 각각 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무역이 각자의 경제 활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측정한다. 그 표현 공식은 다음과 같다.

$$TRD_{ij,t} = (X_{ij,t} + M_{ij,t}) / GDP_{i,t}$$

이 중  $X_{ij,t}$ 는 I국이 t년의 j국에 대한 수출 무역액을 나타내고,  $M_{ij,t}$ 는 I국이 t년에 j국에서의 수입 무역액을 나타낸다.  $GDP_{i,t}$ 는 i국이 t년의 국내 생산 총가치를 표시한다. TRD의 취급 구간은 [0,1]으로, 숫자가 클수록 양자 무역에 대한 i국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sup>66)</sup>

65) Katherine Barbieri, "Globalization and Peace: Assessing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Trad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1999, pp.387-404.

66) 王慧慧, "中美經貿不對稱依賴關係分析", *財經問題研究*, 2019, pp.41-50.

3) 중·미 무역의존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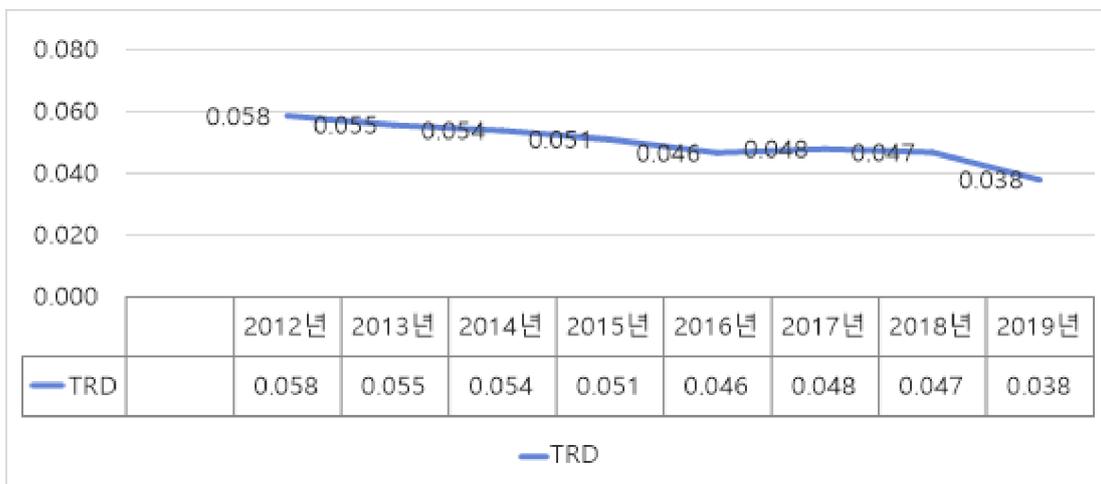
(1) 중·미 무역의존도

<표 3-9> 중국이 대미국의 무역 의존도

(단위: 억 달러)

연도	수출액	수입액	중국GDP	TRD (수출액+수입액)/GDP
2012	3,518	1,328	83,000	0.058
2013	3,684	1,525	94,000	0.055
2014	3,960	1,590	103,557	0.054
2015	4,096	1,487	110,000	0.051
2016	3,852	1,344	112,000	0.046
2017	4,297	1,539	122,503	0.048
2018	4,784	1,551	136,060	0.047
2019	4,185	1,227	143,600	0.038

자료: 중국상무부(www.mofcom.gov.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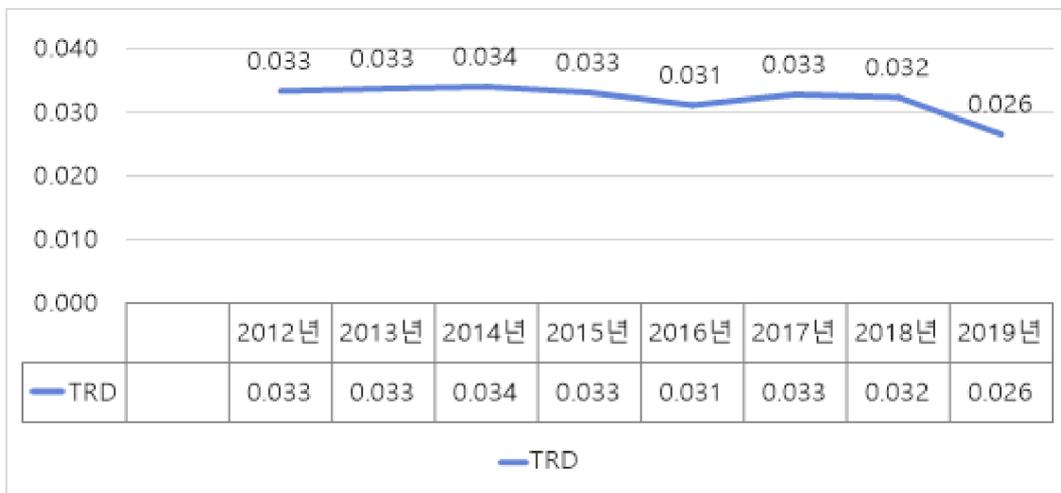
<그림 3-4> 2012-2019년 중국이 대미국의 무역 의존도

<표 3-10> 미국이 대중국의 무역 의존도

(단위: 억 달러)

년도	수출액	수입액	미국GDP	TRD (수출액+수입액)/GDP
2012	1,105	4,256	161,970	0.033
2013	1,217	4,404	167,848	0.033
2014	1,236	4,684	175,217	0.034
2015	1,158	4,832	182,192	0.033
2016	1,155	4,624	187,071	0.031
2017	1,299	5,051	194,853	0.033
2018	1,203	5,395	205,443	0.032
2019	1,064	4,516	212,200	0.026

자료: 미국통계(www.census.gov)



<그림 3-5> 2012-2019년 미국이 대중국의 무역 의존도

<표 3-9>과 <표 3-10>을 보면 2011~2019년 동안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보다 현저히 높았다. 이는 중국 현재의 경제 성장이 미국 무역에 더 의존하면서 불균형 적인 의존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세

에 처한 것이다. 현재,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의 감소 추세는 뚜렷하며, TRD 값은 2012년의 0.058에서 2019년의 0.038로 내려갔다.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국민경제가 국내 경기에 따른 대내적 변수보다 세계 경제상황 등의 대외적 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세계경제가 불안하여 수요가 감소하면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어 국민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 세계경제위기 당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지만 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sup>67)</sup>

<표 3-9>과 <표 3-10> 에서 보다시피 중미 양국의 무역의존도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보다 높을 경우 중국의 거시경제와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높은 무역의존도는 우선 GDP의 높은 비중이 외국 시장에 대해 의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제시장의 파동은 자국의 취업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 수출품 중 노동집약적인 제품 비중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높은 수출의존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파동의 원인에는 경제 주기 영향, 특히 보호주의 정책이 포함된다.

비교적 높은 무역의존도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의 무역마찰과 분쟁을 증폭시켜 무역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 중국 시장의 대외 수출입 시장 구조의 집중과 제품구조의 단일성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국내 경제 성장이 중국의 이 나라들에 대한 무역 수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국 경제의 번영여부는 대 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역할도 중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입에 영향을 준다. <표 3-9>과 <표 3-10>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미 양국의 무역 의존도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늘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보다 높았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높은 의존도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여러 형태의 무역 마찰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현재 전통적인 중국 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무역구제조치(보장조치, 식물 특제한 조치)와 무역장벽조치 조사, 특히 미국의 337조항 조사, 기술장벽 조사 등이 미국이 중국 제품을 컨트롤하는 방법과 수단이 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 양상은 중국의 수출품 구조, 물량 등이 중국의 대외무

67) 周睿, “淺議中美貿易的不對稱依賴及其形成機制”, 亞太經濟, 2011, pp.57-59.

역 핵심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2017년 중미 무역마찰에서 중국은 관세 부과액의 가징에서 미국을 등한시할 수 없게 됐고, 중국은 약 1300억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했지만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5000억 달러에 달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 무역마찰에서 약세를 보여왔다. 그만큼 중국의 대외무역의 발전과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의존도는 중국의 무역 마찰의 시대로의 진입이 불가피하도록 한다.<sup>68)</sup>

중미의 비대칭인 무역의존도 관계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으면 미국은 우위 권력을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자체 안전보장의 위협으로 여기고 둘째는 비시장경제 국가로, 셋째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은 1989년부터 ‘국가수출전략’이라는 명분 아래 수출규제를 완화해 왔다. 중국에 대한 규제 완화와 경제제재 해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연합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중국의 전략물자 판매를 막는 태도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이 자체 안보에 대해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둘째, 미국은 그 국내법에 따라 중국을 ‘비시장경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미국은 ‘시장경제국가’가 충족해야 하는 6가지 조건을 규정한다. 첫째, 통화의 교환 가능성; 둘째, 노사간 자유 협상을 통한 임금 결정; 셋째, 합자 등 외자 기업 설립의 자유 허용; 넷째, 정부는 생산 자료에 대한 통제 감소; 다섯째, 정부는 자원 배분, 기업 생산과 상품 생산의 축소를 줄여야 한다. 위의 6가지를 놓고 볼 때 중국은 제1과 제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6항에서 거대한 장애에 직면하고 있어 중국은 지금도 비시장경제국가로 미국에 인식되고 있다.

셋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에 커다란 상호보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갈수록 중국을 글로벌적인 전략적 경쟁상대로 보고 있다. 중미 무역 불균형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급격히 확대됐다. 막대한 무역적자는 미국 의회와 정부의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나아가 중국 무역에 대한 각종 조치로 적자를 줄이는 목적으로 무역 마찰을 만들고 있다.<sup>69)</sup>

중국의 대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중 무역마찰에서 중국이 받을 타격이

68) 劉超, “中美貿易依存度問題的探討”, 中外企業家, 2017, pp.37-39.

69) 徐馨予, “論中美不對稱相互依賴及其權利的應用”, 社科縱橫, 2008, pp.376-380.

더 크다. 중국은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전면적인 대응 대신 제한적으로 대응 하면서 막후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3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도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대한 상징적인 대응 조치 성격이 크다. 중국은 보복관세 부과에서 대두, 비행기, 자동차 등 핵심 품목은 제외시키면서 과도한 대응을 자제했다. 협상을 통해서 서로의 기대와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면 전면적인 무역마찰까지는 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본격적인 무역마찰을 벌이면 미중 양국 모두 타격을 입겠지만, 중국이 받을 영향이 미국보다 크고 중국 지도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sup>70)</sup>

중미 경제무역 쌍방의 상호 의존 관계에서 중국은 여전히 비교적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경제 발전 및 정책 수립은 미국의 거시경제와 정책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중미 간의 비대칭 의존관계를 개선해야 국제적인 사안에 대한 중국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고 무역 마찰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더 지켜낼 수 있다.

## (2) 중·미 화물 무역 구조의 의존도

중미의 국제 분업의 지위는 다르다, 이는 양국의 화물 무역 구조 측면에서의 차이를 결정하였고 상호간의 불균형 적인 의존 관계의 중요한 영역을 구성하였다. 본 논문은 중미 양자 무역에서 상품의 시장 대체성과 전략적 상품의 무역에서의 비중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현재 상품 구조 분야에서의 불균형 적인 의존도를 분석하였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상품 중 일상 소비재, 기술수준이 낮은 조립 가공품이 주된 몫을 차지하는 반면, 후자가 전자에게 수출하는 상품 중 전략제품, 고신기술품과 중간 제품이 주제품일 경우 전자가 불균형 의존관계 중 의존도가 강한 쪽에 속한다.<sup>71)</sup> 중미 양국 수출의 주요 상품 구성은 <표 3-11>, <표 3-12>와 같다.

70) 김재현, “미중 무역마찰에서 중국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 머니투데이, 2019.

71) 周現國, “中美貿易摩擦的影響及中國應對政策”, 學術大視野, 2019, pp.21-23.

<표 3-11> 중국 수출하는 주요 상품 구성

(단위: 억 달러)

세관 분류	상품 분류	2019년	2018년	동기 대비
16류	기전제품	10,933	9,815	0.11%
20류	가구, 완구	1,679	1,591	0.06%
11류	식물 및 원료	2,660	2,573	0.03%
15류	철금속 및 제품	1,854	1,650	0.12%
7류	플라스틱, 고무	1,018	906	0.12%
12류	신발, 우산 등 경공업	611	611	0.00%
17류	물류 설비	1,180	1,048	0.13%
6류	항공 제품	1,365	1,144	0.19%
18류	광학, 시계, 의료장비	777	768	0.01%
8류	가죽 제품, 가방	343	331	0.04%
13류	도자기, 유리	502	459	0.09%

자료: 중국대외경제무역

<표 3-12> 미국 수출하는 주요 상품 구성

(단위: 억 달러)

세관 분류	상품 분류	2019년	2018년	동기 대비
17류	물류설비	295	277	0.06%
16류	기전제품	250	270	-0.07%
2류	식물제품	149	50	1.98%
6류	항공제품	111	124	-0.10%
5류	광산물	100	96	0.04%
18류	광학 시계 의료장비	88	98	-0.10%
7류	플라스틱 고무	63	64	-0.02%
15류	천 금속 및 제품	60	48	0.25%
10류	섬유, 종이	43	39	0.10%
9류	목 제품	32	29	0.10%
1류	살아있는 동물, 동물 제품	24	21	0.14%

자료: 중국대외무역망

<표 3-11>를 보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기전 제품이며 가구, 완구, 식물 및 원료가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 볼 때, 첫째, 기전제품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 가구나 장난감 등 부가가치가 더 낮

은 제품을 이미 훨씬 앞지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술 함량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고 노동력이 밀집된 기계설비나 전자전기제품이 주축이며 동시에 현재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데다 동남아 국가들의 경쟁력 강화로 수출 상품 대체의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대부분 가공 무역으로 미소곡선의 수익이 아래 위치로, 소량의 가공비만을 받을 수 있고 증가치 무역을 사용하는 계산방법아래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액 및 이익은 더 감소할 것이다. 반면<표 3-12> 미국의 대중국 수출 데이터, 수출 상품의 종류 및 지분은 더욱 분산되어 있으며, 미국이 중국의 시장 수요에 덜 의존하며 같은 조건에서 더 낮은 원가와 함께 더 빠른 속도로 시장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 상품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전히 약해 당분간 중국은 더 많은 수출 대체 시장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별 무역액에서 2018년에 증가해 미국이 무역보호주의와 일방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수출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법을 통하여 모르는 사이에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다.<sup>72)</sup>

### (3) 중·미 FDI영역의 의존도

FDI 분야의 불균형 의존도는 종종 양국이 서로에 대한 자본 의존도의 크기를 통해 측정한다. 본 논문은 자금의 유동 상황에 근거한다. 양측의 자체로 진행된 수입의존도와 수출 의존도를 사용해 FDI 분야에서 중미 양국 간 불균형 의존관계를 진단하고, 수치가 높을수록 그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3-13>에 나와 있는 것과 같다.

72) 盧令成, "中美貿易摩擦原因及對策研究論文", 2017.

<표 3-13> 2012-2019년 동안 중미 간 FDI 의존도

연도	중국대 미국의 자본 수입 의존도	미국대 중국의 자본 수입 의존도	중국대 미국의 자본 수출 의존도	미국대 중국의 자본 수출 의존도
2012	1.077	0.191	0.768	0.206
2013	0.969	0.178	0.876	0.233
2014	0.884	0.358	0.682	0.367
2015	0.861	0.166	0.747	0.371
2016	1.365	0.394	0.783	0.327
2017	1.575	0.220	0.837	0.495
2018	1.077	0.193	0.562	0.526
2019	0.862	0.186	0.435	0.862

자료: data.eastmoney.com, US.International Trade

<표 3-13>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중국의 미국 자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미국의 중국 자본에 대한 수출 의존도 즉, 중국 FDI 자금은 더 많은 부분이 미국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미국 FDI의 흐름은 더욱 분산되어 중국은 미국 시장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중국 자본에 대한 미국의 수입 의존도가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자본에 대한 중국의 수입 의존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의 FDI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분야에서 상호 의존적인 비대칭성도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2015년 중국의 미국에 대한 FDI 유량이 처음으로 미국 대 중국 FDI 유량을 추월하고 이 상황은 2012년 이어졌고, 2019년까지 양국의 쌍방향 FDI누계는 이미 2400억 불을 넘어섰다.<sup>73)</sup>

자본 흐름은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며, 중미 간 FDI 유량은 양국 경제 무역 정책, 정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이 미국에 대한 투자 제한 및 양자 투자 협정 협상이 대치 상태에 빠진 가운데 2017년 미국과 유럽 지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

73) 林克明, "貿易摩擦下中美貿易依存度分析", 國際貿易, 2019, pp.35-40.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양국 경제 무역 관계의 양호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4) 중·미금융 영역의 의존도

그동안의 중국에서 보유한 미국 국채의 양과 배당을 비교하여 중국 외환보유액의 구성 및 미국 국채의 보유자 구조를 분석하여 금융 분야에서의 상호 의존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막대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미국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미국은 신속하게 통화증자 정책을 채택하여 매도한 달러를 되 사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동시에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가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중미 채무관계에서 여전히 의존성이 강한 편이다.<sup>74)</sup>

우선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가 외국인 투자자의 전체 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실제로는 미국 국채는 미국 내 기관에서 매입한다, 예를 들면 연금, 보험사 등,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비중은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전체 채무의 비중에서 높지 않다. 그리고 중장기 채권이 중국에서 보유한 미국 국채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여 단기내의 대량의 매도는 실현이 어렵다. 때문에 미국 경제에 막대한 위협을 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경제 구조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이 경기 변동을 예상할 때 위험을 피하기 위한 투자로 금과 달러를 택하는 것도 중국이 달러의 외환보유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 보유하는 것이 미국 정부에 대한 영향은 예상한 것처럼 크지 않다.<sup>75)</sup>

74) 馮曉玲, 王慧慧, "中美經貿不對稱依賴關係分析", 財經問題研究, 2019.

75) 楊冰, "一帶一路倡議對我國對外貿易經濟的影響", 貿易經濟, 2018, pp.67.

## 제4장 중국의 영향 및 대응 방안

### 제1절 중국에 대한 영향

중미 간 무역 마찰이 한층 고조되면서 중국이 받고 있는 무역 충격과 경제 하향의 압력이 커지고 외부 환경이 현저히 악화됐다. 물론 이번 무역 마찰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 1. 긍정적인 영향

중국이 스스로의 부족과 격차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개혁 개방의 40년 동안 중국의 경제 발전은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일부 분야의 발전이 세계 상위권으로 올라 자만심과 오만함에 휩싸였고, 일부 학자들은 적이 강하고 자체가 약한 국면을 외면한 채 ‘대가를 아끼지 않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나섰다. 중미 무역전이 한층 더 고조 되었다. 특히 “중흥” 사건은 핵심 기술, 과학 연구, 국가 안보 등 여러 방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욱 큰 결의로 새로운 개혁 개방을 추진해야 하고, 인재를 영입하며 자체적인 창조와 지적 재산의 보호, 기초 과학의 발전 산업 구조의 개선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 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각성제이다.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한다. 중미의 왕래에 있어서 쌍방의 경제무역 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양호한 발전 단계에 있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중미 무역 마찰이 증폭되면서 세계상의 패권국들은 이미 중국을 라이벌로 여기고, 미국은 경제 무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새로운 위험한 시기에 들어섰다고 말한다.<sup>76)</sup>

76) 宋馥竹, “一帶一路戰略對我國國際貿易的影響”, 商情, 2018.

## 2. 부정적인 영향

경기 하행 압력이 크고 단기적으로는 중미 무역 마찰이 확대되어 수출과 순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해 경기가 더 빠르게 하행할 수 있다. 현재 이미 발효된 25%의 세율인 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마찰은 그해 중국 GDP를 0.1%~0.2%포인트 하락 시켰고, 중미 간 통상마찰이 10% 세율인 2,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면 중국은 그해의 실제 GDP가 0.4%~0.5% 내려갈 것이다, 무역 마찰이 10% 세율인 4,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다면 그해 실제 GDP가 0.8%~1.0% 하락하게 된다.

신흥 산업이 제동을 걸었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과학기술 선도과 시장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민감한 기술에 대한 투자 규제, 고신기술 제품의 중국 수출 규제 등 기술 봉쇄 조치와 고금리 기술 제품 쿼터와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중국의 고신기술 제품의 발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압박을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 산업 체인의 첨단 영역에서 발전 하는 것을 저해 하고 있다. 중국의 대다수 하이테크 산업은 핵심 기술이나 제품 개발에 있어서 유럽 등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중국의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sup>77)</sup>

전 세계 무역과 경제 발전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중미 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양대 산맥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무역국이며 미국은 제품 혁신과 디자인 종주국이며 중국은 제조업 기지와 세계 공장으로서 제품을 세계 각지로 보내는 일을 맡고 있다. 중미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세계 산업 체인의 판도와 시장 질서를 전반적으로 바꾸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 IMF는 관련 관세 위협과 기타 장벽이 모든 국가의 수입품 가격을 10퍼센트 인상하고 5년 후 전 세계 무역을 15%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국가의 관세 인상에 따라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는 1.4% 하락할 것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에서 취하는 무역 보호 조치를 반대하고 있다.<sup>78)</sup>

동시에 중국의 산업 과잉과 수요 공급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이번 무역 마찰에서는 중국의 철강산업과 부가가치가 높은 과학기술류 제품이 중점이 되고 있

77) 王雪芳, "一帶一路戰略下我國對外貿易的機遇與挑戰", 現代經濟信息, 2017.

78) 王芳, "我國高新技術產業政策發展歷程及趨勢初探", 開發研究, 2016.

다. 2018년 3월 미국은 중국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의 철강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철강 봉재의 수출은 2016년의 4,126만 톤에서 1,608만 톤으로 내려가 전년 대비 61.03% 감소했고, 2018년 철강봉재 수출은 1,275만 톤으로 20.71% 줄었다. 가뜩이나 과잉생산을 하고 있는 중국 철강제품의 수출이 줄면서 생산능력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어 2017년 중국의 태양광 수출은 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91% 감소하는 등 미국의 보장 조치이후 수출량은 뚜렷하게 줄어들었다.

## 제2절 중국의 대응방안

### 1. 중·미 협상방면

#### 1) WTO의 구조에서 해결방안

WTO는 무역 분쟁을 도울 수 있기에 중미 무역 마찰에서 중국은 WTO분쟁 해결 체제를 제때에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국과 무역 대화와 담판을 하여 합법적인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WTO는 장기적으로 다자간의 무역 발전을 추진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WTO의 분쟁해결 체제는 무역 마찰 등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비교적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특히 발전도상국이 국제간의 무역 마찰 문제를 처리하는 주요 수단이다. 미국이 이번 무역 마찰에서 제기한 “301조사” 등 단변 무역 보호 조치는 모두 WTO의 원칙, 자유 무역 규칙과 분쟁 무역 해결 메커니즘을 위반하였다.

중국은 이번 중미 무역 마찰에서 WTO의 합규성을 통하여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보호 정책을 비난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는 반제 조치를 취하여 자국이 국제 무역에서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sup>79)</sup>

#### 2) 무역 마찰 관리 예비 경보 메커니즘 건립

중국 기업들은 외국이 중국에 대한 “쌍반(반덤핑 및 반보조금)”소송을 할 때 흔히 약세에 처한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국제 반덤핑 반보조금의 조사에 응소할

79) 徐建偉, “改革開放以來我國工業發展的階段特征与未來展望”, 經濟縱橫, 2017, pp.22.

수 있는 완전한 법률과 법규가 없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게 강력한 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무역 분쟁 해결 체제의 전문 인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응함에 있어서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 국제 무역 마찰 방면에서의 관련 법률과 법규를 보완하여 중국 기업에 마찰이 생겼을 때 지원을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 무역 마찰과 관련되는 지식 와 연구를 강화하고 해결 체제의 전문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와 타국 간의 무역 마찰을 줄일 수 있다.<sup>80)</sup>

철강 업계를 예로 들어보자. 강철 업계의 경고 체제는 일련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강철 산업의 수출 감독 체제를 보완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강철의 가격과 강철 시장 제품 가격에 대한 분석을 하여 강철 제품의 수출 가격과 시장 통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 밖에 다른 업종은 자신의 경영 모델과 수출 무역 규모에 따라 각자의 기능을 발휘하여 시장의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강철 산업 상품의 수출 무역 판매가 무역 마찰로 인해 지장을 받거나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정보를 경고 플랫폼에 전송하고, 강철 기업의 수출 무역 현황에 따라 무역 방향을 제일시간에 바뀌어야 한다.<sup>81)</sup>

## 2. 중국 무역 개방 방면

### 1) “일대일로”의 정책을 견지

중국이 최근 5년 동안의 대외 무역 마찰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발진도상국이 든 선진국이든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쌍반정책”(반덤핑, 반보조금정책)은 모두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 우세를 가진 노동 집약형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인구 대국으로서 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넓으며 비교할 수 없는 가공 우세를 가지고 있으며 제품의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된 일부 제품은 일부 국가의 제품보다 자연스럽게 싸다.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가 낮고 가공의 깊이가 얕다는 등의 이유를 핑계로 우리나라의 우세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수출 제품의 구조를

80) 陸浙宇, “淺析一帶一路戰略背景下我國對外貿易的機遇與挑戰”, 經貿實踐, 2018, pp.94-96.

81) 王文皓, “一帶一路下我國對外貿易的機遇、障礙及對策”, 中國商論, 2017.

조정하고 “일대일로”의 정책으로 가져온 성과와 중국 현재의 경제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제품의 부가가치와 가공 심도를 향상시켜 제품 자체의 가치를 향상시켜 다른 나라가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즉시 예방해야 한다. 다른 한편 “일대일로”의 정책이 가져온 기회에 근거 하여 공업산품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야 하고, 중국의 공업 산품에 대해 차츰차츰 개혁을 실시하였다.<sup>82)</sup>

그리고 “일대일로”의 정책과 국제 영향력 그리고 중국 자체의 우세를 이용하여 더 많은 기술형 발전 기업을 유치하여 무역 협작을 할 수 있으며 외국 기초 과학기술의 도입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술 연구 혁신을 강화하여 중국 제품의 기술 함량을 향상시키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중소기업도 “일대일로”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중국이 기술형 제품에서의 무역 마찰을 줄인다.

앞서 말한 내용을 종합하면 중국의 대외 무역 마찰은 “일대일로”의 영향을 받아 많은 변화가 발생 했다. “일대일로”의 제안은 중국 대외 무역의 새로운 경로로서 중국 기업에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그와 동시에 중국 경제 발전에 추진 역할을 했다. 최근 5년 동안 중국의 대외 무역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중국의 대외 무역도 무역 마찰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므로 대외 무역 마찰 예방 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제품의 부가가치를 조정해야만 중국의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다.<sup>83)</sup>

## 2) 국내 시장 다원화

수출 시장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단일 시장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중국이 빈번하게 다른 국제기구에 의해 반덤핑 조사를 받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단일 시장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새로운 수출 시장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제안이 제기된 후에 중국과 주변 국가와의 무역 왕래는 점점 더 밀접해졌다. 2018년 11월까지 중국과 주변 국가들의 화물 무역액은 이미 1조 2,000억 달러에 달했고 2017년 보다 18.3% 증가했다. 우리나라 기업은 국제 무역 구조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발전 전략을 바꾸

82) 馬學禮, “一路帶一路, 倡議的規則型風險研究”, 亞太經濟, 2015, pp.3-8.

83) 吳潤生, 郝浩, 季劍軍, “特朗普新政下中美經濟合作的主要分歧及對策建議”, 外資經貿, 2017, pp.36-38

고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시장의 다양성, 수출이 미국, 일본 등 소수 국가에 집중된 것도 국제경제정치 파동 위험의 집약을 키웠다. 수출 다양성 전략의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국가 전략 조정의 중요한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자의 조세 우대 정책을 조정하여, 내외자 기업에 대해 동등한 국민 대우를 실시하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외자기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초국민 대우정책을 시행해 왔다. 우리의 대외 개방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런 상황은 점차 바뀌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교 세수 혜택에 초점을 맞춰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초국민적 처우를 대폭 줄여야 한다. 내외자기업 소득세의 통일을 가속화하고, 내외국인 기업이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외국인 세금 우대 정책을 전면 우대제에서 특정 우대제로 전환하여야 한다.<sup>84)</sup>

중미 무역 전쟁은 두 나라의 수출 무역 경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경제 글로벌화의 큰 배경 하에서 중미 무역 전쟁은 이미 기타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하여 국가는 다른 국가의 도움과 지지를 구해야 한다. 안정적인 무역 국제 관계를 구축하기만 하면 수출 무역은 개별 국가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업계의 전체적인 발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2018년 “301조사”가 시작된 후에 중국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야기한 무역 분쟁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적극적으로 응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와 동시에 유럽 연합, 러시아 등 중미 무역전쟁에서 영향을 받은 다른 나라에게도 자발적으로 연락하여 입장적인 지지를 구했다. 일련의 동원을 거쳐 독일,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미국이 주도한 “중미 무역 전쟁”은 중국의 수출 무역 뿐만 아니라 세계 수출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모두 밝혔다. 미국 측이 국제 정세의 압력에 시달리면서 이해득실을 따지기 시작했고 중국과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새로운 국제 무역 관계를 확대하는 것은 중국이 중미 무역 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sup>85)</sup>

현재의 중미 무역 상황 하에서 더 많은 수출 시장을 발전시키고 중국의 제품

84) 劉超, “中美貿易依存度問題的探討”, 中外企業家, 2017, pp.37-39.

85) 趙玉娟, 彭劍波, “中美貿易摩擦升級的成因及對策”, 對外經貿實務, 2018.

을 더 많은 국가로 분산 수출 하는 것 특히 일부 시장 진입 문턱이 비교적 낮은 발전도상국에게 수출하는 것을 통해 중국 제품이 발전도상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을 주요 수출국으로 하는 동시에 새로운 무역 시장을 개척하고 무역 마찰의 집중성을 줄여야 한다. 세계 경제의 일체화 배경 하에서 미국이 중국과 자주 무역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시장 의존도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 보다 크고 양국이 무역 마찰을 일으키는 동안 미국이 줄곧 우세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로인하여 수출 시장이 다원화 되는 것은 중국 무역 발전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유럽 연합, 중동 지역과의 경제 왕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한중일 FTA협력 관계를 시급히 확정해야 한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중미 무역 마찰의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 3. 무역 개혁 방안

#### 1) 산업 구조 개혁

우리나라 제품의 직수출은 이미 큰 시장이 있다. 개방의 초급단계로서 수출의 성장은 국가의 국제경쟁력 향상의 현금화와 글로벌한 성취에 대한 참여의 표현이다. 기존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나아가 자주적 지적 재산을 파악하는 경우에 생산에 투자하여 우리 자신의 다국적 경영을 발전시킨다.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다국적 경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내재적인 일부 위험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국적 인수 합병을 통해 독자적 지적재산권의 핵심기술과 브랜드를 육성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자원과 에너지를 얻어 진정한 경쟁 우위를 가진 다국적기업과 세계적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중국에서 수출하는 제품은 대부분이 기술 함량이 낮고 원가가 낮으며 또한 다른 노동 집약형 제품 국가와 치열한 경쟁을 치루어야 하기에 중국은 흔히 수출 제품의 가격을 낮게 누르는 것을 통하여 경쟁 우세를 얻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덤핑을 가하는 가상을 주곤 한다. 그리하여 중국은 산업 구조를 신속하게 조정하고 산업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함으로써 하여 시장 수요가 제품 생산을 유

도하고 각 산업의 구조를 점차적으로 최적화 시키며 수출 무역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수출 제품이 노동 집약형에서 기술 집약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각 기업이 자신의 우세에 따라 국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격려하여 경제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sup>86)</sup>

## 2) 기업 혁신 격려

2016-2018년에 미국은 2차례 중국 중흥 기업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여 중국 의 중흥 산업 손실이 심각하고 폐업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엄중한 영향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생겼다. 중흥 핵심 기술 부품의 60%가 미국에서 왔고 중흥 기업들이 미국에 얽매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높은 관세에 대하여 펌프를 수출하는 기업이 25%의 관세를 면제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것은 기업이 제품을 수출하는 경쟁력이 강하고 다른 기업이 대체할 수 없어야만 무역 마찰에서 이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 기업은 과학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제품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며 다른 나라의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기술 함량을 높여 높은 기술함량과 높은 가격의 제품을 수출하며 저렴한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들이 중국 에 대해 빈번히 반덤핑을 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초기의 기업에 대해 국가는 혜택 정책을 적당하게 해주었다. 예를 들어 세금 감면 강화와 경향성 정부 육성 등을 통해 그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 중국은 더 많은 과학 기술 대기업의 형성을 필요로 하고 경쟁을 통해 과학 기술의 신속한 발전을 추진했다. 한편 과학기술 방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대형 기업들이 존재한다. 특히 일부 민영기업이다. 국가는 응당 그들을 인정을 해 주고 과학 연구 자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금, 인재 분야 정책을 포함한 과학 연구 자금 취득에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기업이 과학 기술 성과에 있어 더욱 큰 돌파구가 있도록 격려하며 기술의 대외 의존도를 가속화해야 한다. 이번과 같은 중미 무역 마찰에서 미국이 중국 휴대전화 칩과 응용시스템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 것은 바로 화웨이 자신의 과학 연구 기술 비축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원 없이도 예비 칩과 응용 시스템을 보유하여 미국의 제재를 성공적으로

86) 高尚濤, “相互依賴框架下的美國對華戰略分析”, 外交評論, 2010, pp.76-90

로 해결했기 때문이며 기술방면에서 진정으로 독립되었기에 중국의 휴대전화  
미국의 제재 하에 생산을 중지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러한 최첨단 기술 민영 기  
업의 혁신 기술력이 중국의 피동적인 정세를 전환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보아 낼 수 있다.<sup>87)</sup>

---

87) 鐘雪, "中美貿易摩擦的特征分析及對策探究", 現代營銷, 2018, pp.22-26.

##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미 간 무역마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첫째, 중·미 간 무역 마찰의 현황 검토를 바탕으로 중·미 간 무역 마찰의 특징을 밝혔다, 둘째, 중·미 간 무역 마찰의 발전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였다. 셋째, 중·미 간 무역마찰의 요인을 중·미 무역의 균형 상실, 미국 “반덤핑”, 반보조금“ 정책, 지적재산권 분쟁, 중·미 무역 비대칭 의존관계 접근방법으로 규명하였다. 이상의 분석에 근거하여 중·미 간 무역마찰 발생요인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마찰 발생 원인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의 지속적인 확대를 들 수 있다. 제3장에서 검토했듯이 중국의 미국에 대한 화물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2016년 346,825 백만 달러, 2018년 419,527 백만 달러가 최고 무역차액이 되었다. 미국정부의 불만을 고조시켰고, 중국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조치의 발동 등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 등의 중·미 간 무역마찰로 이어졌다.

둘째, 중국의 개혁 개방 40년 이래, 중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종합 국력과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금융, 수출입 무역 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손을 대며 각종 마찰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마찰을 증폭시키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강도 높은 압박으로 중국 기업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들 수 있다. 미국, 유럽 등은 중국의 무차별적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시정을 요구해왔으며, 지금까지 수도 없이 유럽, 미국, 일본 등등의 국가와 중국 사이에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무역마찰이 발생해왔다.

넷째, 중국과 미국의 비대칭 무역의존도를 들 수 있다. 중·미의 국제 분업의 지위는 다르다, 이는 양국의 화물 무역 구조 측면에서의 차이를 결정하였고 상호간의 불균형 적인 의존 관계의 중요한 영역을 구성하였다. 중국은 미국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자본을 중국으로 대량 유입시켰고, 중국은 미국의 유입한 자본을 이용하여 산업과 제품구조를 개혁하였다. 중국은 미국 보다 더 많은 이익

을 얻었다. 미국은 기대하는 이익이 없기에 무역마찰을 발생시켜 왔다.

이상의 중·미 무역마찰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중·미 간 무역마찰에 대한 대응방안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WTO는 무역 마찰을 도울 수 있기에 중·미 무역에서 중국은 WTO분쟁 해결 체제를 제때에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미국과 무역 대화와 담판을 하여 합법적인 이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 국제 무역 마찰 방면에서의 관련 법률과 법규를 보완하여 중국 기업에 마찰이 생겼을 때 지원을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 무역 마찰과 관련되는 연구를 강화하고 해결 체제의 전문 인재를 육성해야한다.

셋째, 무역시장 다원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중·미 무역 상황에서 더 많은 수출 시장을 발전시키고 중국의 제품을 더 많은 국가로 분산 수출 하는 것 특히 일부 개발도상국에게 수출하는 것을 통해 중국 제품이 개발도상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미국이 중국과 자주 무역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시장의존도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 보다 크고 양국이 무역마찰을 일으키는 동안 미국이 줄곧 우세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로인하여 수출 시장이 다원화 되는 것은 중국 무역 마찰 해결 주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중국 경제력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세계 경제 일체화의 큰 배경에서 중미 양국 간의 무역 관계는 이미 중미 양국의 문제인 것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발전과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의 경제력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중미 양국의 종합적인 국력이 가까워지고 미국에 대한 중국의 시장 의존도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미소의 곡선”도 점점 평형에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빠른 발전이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패권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에 대해 관세추징, 쌍반정책, 지적재산권 등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채택하여 중미 무역의 마찰을 일으켰다. 미국의 최종적인 의도는 바로 중국의 하이테크 최첨단 기술 수준과 종합적인 국력, 국제적 지위 향상을 억제 하려는 것이다. 이는 무역 마찰의 부단한 업그레이드를 야기하였다.

미국이 실행한 이번 무역 제한 행위는 무역 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정치 방면의 조치도 동시에 채택하였다. 최종 목적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미국이 글로벌 가치 고리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키며 자국 사람들의 실제 취업 기회를

증가하고 자국의 이익을 실제로 증가하는 것이다.

현재 중미 양국은 이미 여러 차례의 무역 협상을 진행하였고 중미 양국은 기술 양도, 지적 재산권, 무역 장벽과 관련하는 업계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이루었다. 미국의 비대칭적인 시장 의존도에 있어서 중국은 화물 무역 규모, 화물 무역 구조, 금융 등 분야에서 산업 업그레이드, 제품 구조 개혁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이다. 중국도 미국과의 장기적인 무역 마찰에 대비하여야 하고 정확한 정책 선고를 내려야 한다. 약세에 처하였을 때 맞춤형 반제를 진행해야 한다.

중미 무역 마찰을 잘 처리하여 중미 무역 마찰의 압력을 중국 경제 발전과 과학 기술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중국의 생산 우세, 제도적 우세, 산업적 우세를 충분히 이용하여야 한다. 확고부동하게 새로운 개혁 개방을 진행하여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 □ 중국문헌

- 徐建偉, “改革開放以來我國工業發展的階段特征与未來展望”, 經濟縱橫, 2017, pp.83-89.
- 彭詩琪, “特朗普時期中美貿易摩擦的原因及對策研究論文”, 天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9.
- 任晗, “中美貿易戰的經濟背景及其對中國的影響”, 經濟研究導刊, 2018.
- 董曦丹, “論中美貿易摩擦的成因与對策中國市場”, daxue,lunwen 2019.
- 龔秀國, “中美貿易摩擦及其影響分析”, 中共青島市委黨校, 青島行政學院學報, 2019, pp.34-39.
- 肖光恩, “当前中美貿易摩擦的現實難題和解決途徑”, 安徽師範大學學報, 人文社會科學版, 2019, pp.40-140.
- 韓國良, “中美貿易戰爭的矛盾分析和走向預判”, 河北企業, 2019.
- 董曦丹, “論中美貿易摩擦的成因与對策中國市場”, 2020.
- 羅錦隆, “分析中美貿易摩擦的原因及其解決對策”, 現代營銷·信息版, 2020.
- 張馳, “中美貿易戰本質及其帶來的影響分析”, 科技風, 2019, p.206.
- 姜崢睿, “合作与摩擦:中美貿易關係發展研究”, 吉林大學, 2017.
- 吳明明, “特朗普政府下中美貿易摩擦分析”, 上海社會科學院, 2018.
- 鐘雪, “中美貿易摩擦的特征分析及對策探究”, 現代營銷, 2018, p.7.
- 王亞飛, 鄭明慧, “中美貿易摩擦的新特点”, 当代經濟管理, 2008, p.9.
- 陳珍珍,張建華, “中美貿易摩擦与擴大開放:基于理論和量化研究”, 世界經濟与政治論壇, 2019, pp.29-47.
- 盧令成, “中美貿易摩擦的原因及對策研究”, 吉林財經大學, 2017.
- 龔夏玥, “中美貿易摩擦及中國應對措施”, 華東師範大學, 2019.
- 肖紅, “中美經貿關係史論(1950~2019年)”, 北京世界知識出版社, 2019.
- 劉秋蓮, “國際貿易摩擦的類型、原因、效應及化解途徑的研究”, 商場現代化, 2018.
- 鐘雪, “中美貿易摩擦的特征分析及對策探討”, 現代營銷(下旬刊), 2018, pp.40-42.
- 肖光恩, “当前中美貿易摩擦的現實難題和解決途徑”, 人民社會科學版, 2019.

- 孟令偉, “中美貿易摩擦的根源及應對措施研究”, 現代經濟信息, 2019, pp.21.
- 吳明明, “特朗普政府下中美貿易摩擦分析”, 上海社會科學院, 2018.
- 余森杰, 金洋, 劉亞琳, “中美貿易摩擦的緣起与對策——一个文獻綜述”, 長安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8, pp.42-47.
-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与世界貿易組織”, 白皮書, 2018年6月28日.
- 閔克遠, “中國對外貿易摩擦問題研究”, 東北師範大學, 2019, pp.23-24.
- 鄧麗莎, “中美貿易摩擦發展歷程分析”, 經濟管理論文, 2019.
- 張時, “我國國際貿易摩擦的特点、原因及對策分析”, 中國商界, 2017.
- 王旭陽, “合則兩利, 斗則俱傷——中美經貿關係在摩擦中前行”, 現代管理科學, 2018.
- 丁佳慧, 侯冰心, 焦蒙丹, 劉聃, “中美貿易摩擦及其解決對策研究”, 現代商業, 2018.
- 帥建林, “中美貿易摩擦的特征分析”, 中國商界, 2010.
- 曲越, 秦曉鈺, 黃海剛, “中美貿易摩擦對中國產業与經濟的影響——以2018年美國對華“301調查”報告爲例”, 2019.
- 吳紅亮, “國際貿易中的摩擦問題探討”, 財經界(學術版), 2018.
- 王慧慧, “中美經貿不對称依賴關係分析”, 財經問題研究, 2019, pp.41-50.
- 林克明, “貿易摩擦下中美貿易依存度分析”, 三明科技職業學院經濟管理學院, 福建三明, 2019.
- 周現國, “中美貿易摩擦的影響及中國應對政策”, 學術大視野, 2019, pp.21-23.
- 林克明, “貿易摩擦下中美貿易依存度分析”, 國際貿易, 2019.
- 馮曉玲, 王慧慧, “中美經貿不對称依賴關係分析”, 財經問題研究, 2019.
- 楊冰, “一帶一路倡議對我國對外貿易經濟的影響”, 貿易經濟, 2018, pp.67.
- 宋馥竹, “一帶一路戰略對我國國際貿易的影響”, 商情, 2018.
- 王雪芳, “一帶一路戰略下我國對外貿易的机遇与挑戰”, 現代經濟信息, 2017.
- 王芳, “我國高新技術產業政策發展歷程及趨勢初探”, 開發研究, 2016.
- 徐建偉, “改革開放以來我國工業發展的階段特征与未來展望”, 經濟縱橫, 2017, pp.22.
- 陸浙宇, “淺析一帶一路戰略背景下我國對外貿易的机遇与挑戰”, 經貿實踐, 2018,

pp.94-96.

王文皓, “一帶一路下我國對外貿易的機遇、障礙及對策”, 中國商論, 2017.

吳潤生, 郝洁, 季劍軍, “特朗普新政下中美經濟合作的主要分歧及對策建議”, 外資經濟, 2017, pp.36-38

趙玉娟, 彭劍波, “中美貿易摩擦升級的成因及對策”, 對外經貿實務, 2018.

鐘雪, “中美貿易摩擦的特征分析及對策探究”, 現代營銷, 2018, pp.22-26.

張志凱, “中國對外貿易摩擦問題研究“, 南開大學碩士研究論文, 2007.

曾錚, “全球生產網絡體系下中美貿易利益分配的界定”, 世界經濟研究, 2008, pp.36-43.

李燕, “中國產業政策与貿易政策協調問題研究”, 現代經濟討論, 2012, pp.41-45.

賈中正, “中美貿易摩擦与發展”, 中國金融, 2017, pp.69-70.

王頌, “中美貿易摩擦的理論研究 with 實証分析”, 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杜金東, “中日貿易摩擦研究“, 南開大學博士學位論文, 2009.

王亞飛, “貿易摩擦理論研究”, 國際貿易問題, 2007, pp.18-23.

鄒偉偉, “中美經貿關係的歷史發展 with 政策博弈”, 西南財經大學博士學位論文, 2010.

韓焯, “中美貿易摩擦影響因素研究”, 中國物價, 2019, pp.47-50.

林學訪, “論貿易摩擦的成因 with 影響”, 國際貿易, 2007, pp.42-47.

王歡, “中美貿易摩擦的原因 with 對策研究”, 蘇州大學碩士學位論文, 2015.

高尚濤, “相互依賴框架下的美國對華戰略分析”, 外交評論, 2010, pp.76-90

周文重, “中美關係的發展 with 世界格局的演變”, 決策 with 信息, 2015, pp.45-47.

張萊楠, “如何在中美貿易摩擦升級中化被動為主動”, 上海證券報, 2012.

陳仁新, “中美貿易摩擦的政治經濟學分析“, 中國經濟出版社, 2011, pp.183-184.

成夏愉, “中美貿易的新壁壘及我國應對策略”, 天津商業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馬學禮, “一路帶一路, 倡議的規則型風險研究”, 亞太經濟, 2015, pp.3-8. 李計, 羅榮華, “中興事件”案例視角的中美經貿未來發展”, 中國流通經濟, 2019, pp.53-62.

王正蒙, “中美貿易戰背景下我國高新科技行業產業政策的反思 with 調整 —— 基于華為事件的啓示”, 新產經, 2019, pp.91-96.

徐馨予, “論中美不對稱相互依賴及其權利的應用”, 社科縱橫, 2008, pp.376-380.

周睿, “淺議中美貿易的不對稱依賴及其形成機制”, 亞太經濟, 2011, pp.57-59.

□ 한국문헌

김승재, “중미 무역마찰 문제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pp.33-36.

김재현, “미중 무역마찰에서 중국이 질 수 밖에 없는 이유”, 머니투데이, 2019.

나수엽, “중·미 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분쟁격화의 경과와 배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p.83-87.

서평, “중국과 미국 간 무역 및 미적 투자관계”, 현대경제연구원, 2009, pp.16-21.

이승주, “미중 경쟁과 동아시아 경제협력:통상정책을 중심으로”, 2012, pp.10-12.

악단, “미국의 기술무역장벽이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2016, pp.40-42..

정환우, “미-중 통상관계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연구”,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9 NO.23, 2010.

최예화,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요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3, pp.44-48.

□ 미국문헌

Aaron L. Friedberg, “A New U.S. Economic Strategy toward China”, The Washington Quarterly, 2017, pp.23-30.

Albert O. Hirschman, “National Power and the Structure of Foreign Trad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C. Fred Bergsten, “Trump’s War on US Exports”, Trade and Investment Policy Watch blog, 2019.

Joseph Besten, “The political economy of protection”, Geneva and New York:United Nations, 2010, pp.41-42.

Katherine Barbieri, "A Path to Peace or a Source of Interstate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2001, pp.29-49.

Katherine Barbieri, "Globalization and Peace: Assessing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Trad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1999, pp.387-404.

Robert Keohane, Joseph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Glenview, Minois: Scott, Foresman Company", 1989, pp.8-9.

William R. Cline, "Reminbi Undervaluation, China's Surplus and the US Trade Deficit", Policy Briefs, 2010, pp.381-383.

## Abstract

### Researches on Influence of Sino-US Trade Frictions and Corresponding Solutions

LIU RUILO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ong, Jae-Sung

Since the establishment of Sino-US diplomatic relations, their bilateral relations have been developing rapidly and their bilateral trade has been growing steadily. Both countries have complemented each other's advantages for mutual benefits in terms of their cooperation depth and width. The statistics showed that since 2018, China has been the third largest market and the first country of origin for America and America has been the largest goods export market and the sixth largest country importing Chinese goods. However, since 2018, America has repeatedly provoked trade disputes against China, imposed tariffs on goods imported from China and implemented technical blockade on China, which severely hit China-US bilateral trade rel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many papers and reports on Sino-US trade frictions as well as trade friction cases, this paper finds out current situations, featured and reasons of Sino-US trade frictions. Among all reasons for Sino-US trade frictions, this paper considers that the unbalanced trade

dependence between America and China is the main reason for Sino-US trade frictions. Analyses of trade dependency ratio and market dependence of goods trade scale, the interdependence of goods trade structures, the interdependence of FDI field as well as the interdependence of financial fields show that the asymmetric dependence of Sino-US trade is featured by their quantitative imbalances on the one hand, such as the China's huge trade surplus in American trade in goods and China's large holdings of U.S. treasury bonds. On the other hand, it is reflected in the qualitative imbalance, which is the unequal status of America and China in their economic and trade exchanges. Because of its dominant positions, America tend to force China to make more interest concessions. This paper will analyze asymmetric dependency relationships of Sino-US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in the fields of goods trade, direct foreign investment, finance and other fields. After that, from the standpoint of China, this paper analyzes reasons for trade frictions and puts forward some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for China's foreign trade frictions in terms of Sino-US negotiation, trade openness as well as China's trade reforms.

Researches on this paper show that there are deep reasons for frequent trade frictions between China and America. America is hostile to China and industry associations of China's enterprises also have related responsibilities. Therefore, this paper puts forward such following countermeasures as strengthening the negotiations between China and America, expanding China's trade openness and carrying out reforms of China's domestic trade structures so as to promote the steady and sustained development of bilateral trades between China and America.